

청년생활

5,6
1962



1.211 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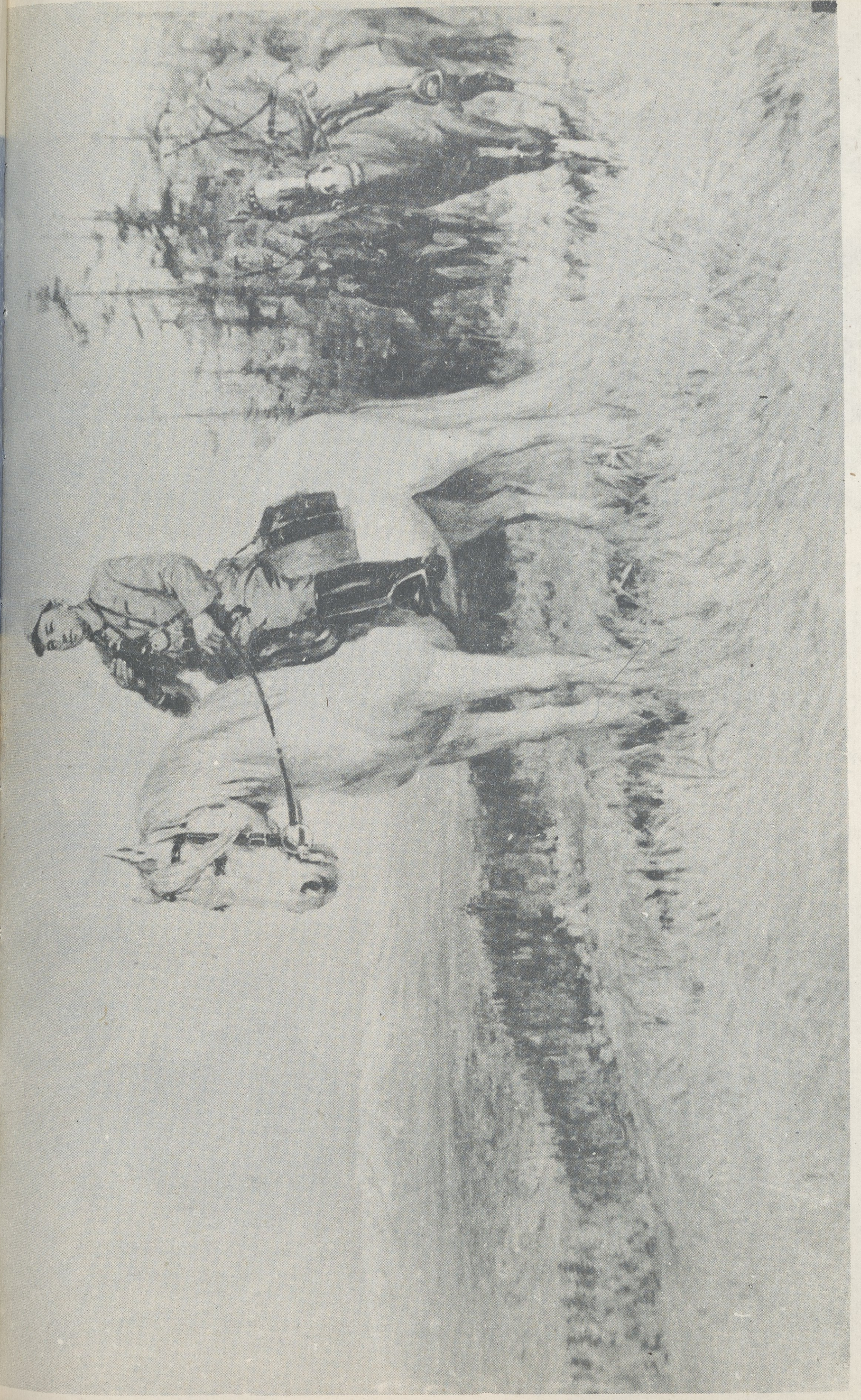
새 조선의 꺾을 수 없은 정신을 찾으려거던
여기로— 《나의 고지》로 오르라!

……

여기서 월가의 망상이 마사진다
여기서 명중탄의 통쾌한 웨침에
세계 제패의 단 꿈이 부서진다.
여기서 백병전의 번개치는 창날에
백아판이 아우성 친다.

조선의 고지, 영웅의 고지
성스런 《나의 고지》여!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월이 끝날때까지
자유와 독립의 빛나는 상징으로
세기들과 세대들을 맞으며
솟아 있으라! 영원하라!

조 기천 시
《나의 고지》 중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유 화



—삼신 탄광 김 진래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의 생활에서—

6개고지 점령을 위한 보람찬 전투에서 삼신 탄광 김 진래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대안 전기 공장과 안주 탄광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년초부터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이룩하여 벌써 지난 6월 6일 현재로 상반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굴진은 채탄에 선행되고 설비의 리용률 또한 높으니 일하긴들 얼마나 신바람나는가! 그들은 300메터를 굴진할 수 있는 막대한 폭약과 자재들을 절약하였으며 금년도 년간 계획을 다가오는 10월 말까지 완수할 결의 밑에 줄기찬 투쟁들을 하고있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며 배우는 사람들! 그들은 일도 잘하지만 생활 역시 흥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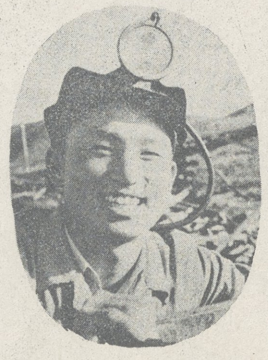
하루일이 끝난 후

① 《오늘도 계획을 초과 완수 하였습니다》





② 《착암기만 틀어 쥐면 힘이 저절로 솟지요》
굴진공 박 선경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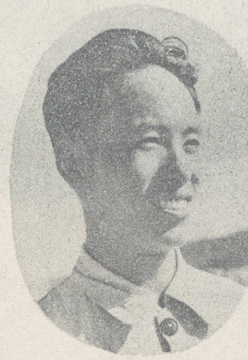
③ 《어떤 때가 제일 기쁘냐구요? 그야 물론 계획을 넘쳐 실행한 날이죠》
굴진공 송 흥근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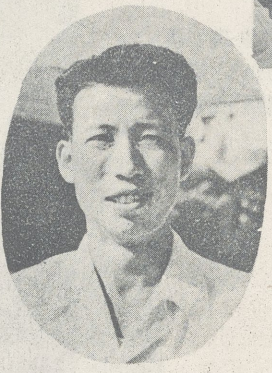
④ 창의 고안 명수 동무 그는 계단식 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올렸다.



⑤ 《잠간만 있으라구. 이젠 마지막 페지야》
독서 애호가 허 종환 동무



⑥ 《모두 한집안 식구처럼 화목하니 일이 더 잘되지요》
민청 위원장 안 한섭 동무



⑦ 《오는 10월까지엔 년간 계획을 기어코 완수 하겠습니다》
작업반장 김 진래 동무



⑧ 밤은 깊어가건만……
기술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



⑨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룬다.
(구락부에서)



⑩ 《오, 조국이여! 그대의 하늘은 얼마나 푸른가! 나는 그대 조국의 품에서 억센 매로 자라나노라》
일요일의 시랑송회는 또 얼마나 좋은가!



⑪ 건전한 체력은 일에서 혁신을 낳는다.

김 정순 영웅과 그의 동무들

(본지 16-19페지 참조)



어머니가 애기를 돌보듯이 새끼 돼지들을 보살펴 준다.

회상기 학습





방목하는 짬짬에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153)

청년생활



5, 6

1962년



차 례



표지 : 1면… 건설장의 아침… 촬영 김 창 규

(시)

고임'돌을 두고

박 세 영

여나므 사람도 넉넉히 둘러 앉을
곤장덕이 떠이고 있는 고임'돌,
사람들 무심히 지나 가다도 눈에 띈다면
금시 땀'방울 가실듯 쉬여가고 싶으리.

먼 태고로부터 풍상을 겪었으련만
본시 그날을 맞으려 생겨난듯,
밀림에 둘리우고 록음에 가리워
세상에선 모를듯 받들려 있던 고임'돌

어찌 알았으랴 스물 다섯해 전,
바로 그분께서 펴 놓았던 작전 지도
화점이 된듯 이 고임'돌이 받들 줄아야,
마치 그 어느 밀영의 돌 책상처럼.

허나 그 지도가 북변의 한 작은 도시
보천보의 산'발들을 그린 지도라하랴.

군데군데 지르신 붉은 화살표가 어찌
몇몇 왜놈들 소굴에 지른 것이라하랴.

그이께선 여기서 삼천리 강토를 보셨고
원한에 찬 인민의 울부짖음소리 들으셨다.
송락에 덥친 이깔나무를 한눈에 보시듯
온 강산의 왜놈들 소굴을 틀어쥐셨다.

하여 그이께서 울리신 한방 총소리
쇠사슬을 끊는 신호로 울렸고
만민의 가슴에 자유의 홰'불을 타게 했거니
찬란한 오늘을 고임'돌도 미리 보았더라.

1962. 5





서광

제2부 중에서

박 달

보천보에 오른 홰'불

3

김 일성 장군께서 직접 지휘하는 인민 혁명군 부대가 계속 장백을 중심으로 국경 지대에 있는 것을 안 일제는 벌써 초봄부터 국경 지대 경비와 아울러 방어 진지를 늘어 놓기에 혈안이 되여 있었다. 압록강 강'가에는 십리에 한 곳씩 큰 포대를 쌓아 올렸으며 경찰 주재소가 신설 되였으며 두 시간에 한 번씩 무장한 군경이 주재소와 주재소 사이를 통과하며 경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혜산에는 일본 륙군 수비대가 증원되였으며 압록강 연안은 사복한 형사 떼와 그 앞잡이들이 늘어 서다싶이 하고 있었다. 놈들은 김 일성 부대가 아무리 강하기로 설마 국내에까지 침입할 생각은 감히 못하리라는 자기 추측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그런데 무산 지구에 인민 혁명군 부대가 침입했다는 정보가 퍼지자 놈들은 기급을 하게 놀랐다. 그래 놈들은 쌍심지가 달린 눈을 까뒤집고 포대 주변에 참호들을 파며 경비에 더욱 광분하였다. 이러한 삼엄한 경계망을 뚫으며 무사히 강을 건너 돌아 온 성호와 시욱은 그날부터 새로운 과업 실천에 일어섰다. 시욱은 그 이튿날부터 국경선의 경비 정형과 보천보 시내 략도를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공산당원이 된 영예, 김 일성 장군께서 직접 과업을 받은 영예로 하여 시욱은 자기 과업 실천에 더욱 용기와 자신심을 가지고 민첩하고 대담하게 움직였다.

보천보 시내는 시욱이가 잘 알며 또 늘 다니는 곳이라 략도를 그릴려면 가보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였으나 시욱은 그 날 하루 종일 보천보 시가를 돌아 다니며 세밀한 정찰을 하였다. 그리고는 략도에 각종 일제의 기관들, 상점들, 주구들 집과 일본인 집까지 자세히 표식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 시욱이 작성한 략도는 그 날 중으로 김 일성 장군에게 전달되였다. 김 일성 장군께서 그 략도를 보시고 대단히 만족 하셨다는 소식이 다음 날 시욱에게도 들어 왔다. 시욱은 거기에 용기를 얻어 매일 압록강 강'가로 난 신작로에 나가 숨어서 하루 종일 그 길을 통과하는 군용 트럭과 그리고 행인들, 이동 경비대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정찰하였다. 시욱은 이 사업에 한해서만은 하부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지 않았다. 비밀을 보장하며 과업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실천했다.

성호는 집에 돌아 오는 그 날로 덕산동 리용운에게서 기쁜 소식을 받았다. 그것은 동경가서 공작을 하고 있는 김 영철에게 과업을 준 등사기 두 대와 그 부속들, 기타 물자와 서적들이 인편을 통해 방금 단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였다. 그러면서 이 물건들을 속히 갑산

지구까지 운반해 와야 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의가 들어 있었다. 성호는 단천까지 고대하던 그 짐이 도착했다는데 우선 안도의 숨을 내 쉴 수 있었다. 등사기 두 대 중 한 대는 유격 부대 지휘부로 들어 가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밀영지를 떠날 때 해당 부문을 담당한 한 대원이 등사판에 대해 물었었다. 성호는 미안해 어쩔 바를 몰라하며 아직 소식이 없는데 곧 무슨 련락이 있으리라는 말을 겨우 했을 뿐이였다. 뿐만 아니라 기타 물자 중에는 중요한 고성능 화학품들이 들어 있을 것이 예견되는데 그 귀중한 약품들도 지휘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였다. 그런 물건들은 국내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어 영철에게 과업을 주었던 것이다.

성호는 우선 이 기쁜 소식을 지휘부에 전달하도록 시욱에게 통신을 보내고 리 용운에게는 덕산동 조직에 망라되여 있는 유능한 동무인 리 필선을 직접 파견해 가져 오도록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동시에 리 필선이 출발 직전에 자기를 만나고 떠나게 하라고 일렀다.

그것은 여러 물자들을 운반해 오는데 있을 수 있는 위험성들을 자세히 알려 주고 만일 그런 경우 어떻게 림시 응변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일일이 대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성호는 이번 받아 가지고 나온 과업들을 신속히 구체화하며 그것을 집행할 데 대한 방법들을 토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준비를 서둘렀다.…

…놈들이 벼락을 맞는 날은 드디여 오고야 말았다.

김 일성 장군이 직접 인솔한 조선 인민 혁명군 한 부대는 6월 3일 밤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 뒤'산 곤장덕에 진주하였다.

6월 4일. 이 날은 마침 보천보 장날이였다. 인민 혁명군 대원들은 농민으로 변장을 하고 장마당 구경을 했다. 이 날 장에는 특히 음식들이 잘 팔렸다. 떡, 엿, 묵, 만두(중국 빵), 과자 등속이 잘 팔릴 뿐만 아니라 많이 팔렸다. 그래 음식 장사들은 오늘은 참 재수가 있는 장날이라고 좋아들 하였다. 고국에 들어와 오래간만에 장을 구경하는 대원들은 조국에서 만든 음식으로 식사 한 끼를 보장했다. 그러니 음식이 자연 잘 팔릴 밖에 없었다. 다른 물건이야 살 필요가 없었다.

이 날 김 일성 장군은 곤장덕 수림속 보천보 시가지가 손'금처럼 내려다 보이는 지점 바위'돌을 깔고 앉으시여 하루 종일 보천보를

굽어 보시였다. 오래간만에 보시는 조국의 거리가 몹시도 장군님의 심금을 건드리기 때문이였다. 비록 북방 변지에 있는 산간 시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국의 시가는 더 없이 정다웠으며 그리우셨던 것이다.

이 날 밤 10시 경, 각 부대들은 자기 공격 방향을 향하여 은밀히 전진했다. 김 일성 장군은 보천보 시가를 감싸고 흐르는 가림천에 걸려 있는 나무 다리를 친히 건느시여 물방아'간 옆에 서 있는 높은 황철나무 밑까지 걸어 나가시였다.

시가는 고요했다. 다만 관료배들, 지주들, 앞잡이들이 요리 집과 술'집에서 떠들썩 고아대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주재소 옆에 우뚝 솟은 포대를 지키는 무장 경찰 놈들도 아마 취흥을 련상하며 하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대들은 공격 지점에 도착해 공격 명령만 기다렸다.

김 일성 장군이 친히 공격 신호총을 쏘았다. 갑자기 산울림을 하며 요란히 울려 퍼지는 한 방의 총성은 조선 안에 둥지를 틀고 앉은 일제의 가슴팍에 수천 수만의 총알을 퍼붓는 총소리로' 변했다. 포대와 경찰 주재소는 겁부터 먼저 먹어 한 방의 대항 자격도 없이 삽시간에 점령되였다. 잠시 후 시가는 완전히 인민 혁명군 부대들에 장악되였다. 적들의 기관인 산림 보호구, 면 사무소, 우편국, 소방대, 창고 등은 어느덧 화염에 싸여 타 올랐다. 일제 놈들은 종적을 감추었으며 국경 지대를 수비하던 적 무장 부대들도 혼비백산해 혜산쪽으로 도주했다. 김 일성 장군 부대의 진공을 환영하는 인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왔다. 선전 대원들은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조선 반일 대중에게 격함》, 《일본 군대에 복무하는 조선인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삐라와 격문을 군중들 속에 뿌렸으며 담'벽과 전선주들에 붙이였다.

김 일성 장군은 모여 선 군중들 앞에 위풍당당한 용모를 나타냈다. 인민들이 환호를 올렸다. 김 일성 장군은 군중들에게 가슴 시원하고 희망이 끓어 넘치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였다. 마치도 그분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민족의 먼 앞길을 내 비치는 홰'불과도 같았다. 인민들은 오래간만에 조선 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쳤으며 인민 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환호를 그치지 않았다. 로인들, 아주머니들, 청년들은 서로 귀'속말을 속삭이며 감격과 흥분으로, 불타는 얼굴로 김 일성 장군을 우러러 보았다.

《조선 사람은 죽지 않았다!》

《김 일성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인민 혁명군은 필요만 하면 국내 어느 지점이든지 공격할 수 있다!》

어느덧 군중들 속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었다. 이 날 산포된 한 격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었다.

…간악 무쌍한 강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하고 20 여 년 총독 정치라는 식민지 통치로써 조선 동포들을 유린 학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 동포들은 놈들에게 피와 땀으로 된 재산을 모조리 략탈 당하여 비참한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우리 민족을 제 2 차 대전의 총받이로 하여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의 도구로 내몰고 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생사 존망의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들은 자기 민족의 출로를 개척하고 자기 생활을 타개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 혁명군이다. 우리들이 6~7 년간 만주 광야에서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과의 필사적 투쟁에서 치명적 타격을 준 것은 세인이 다 인정하는 바이다. 본군은 조선에 있는 애국 지사와 혈연적인 본군 용사들의 강력한 굳은 단결 우에 조선 민족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는 흡혈귀 조선 총독부와 직접 싸울 목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함남북 일대에 진공하게 되였다.

조선 동포 형제들! 속히 출동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단결하여 각종 투쟁으로써 본군의 유격 전쟁에 호응하라! 하루 속히 일제 통치를 분쇄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매진하자!…

군중들은 이 격문들을 모두 소중히 가슴 속에 간직하였다.

인민 혁명군이 시가지를 떠나게 되자 격동된 인민들은 각종 무기, 탄약 기타 군수 물자 로획품들을 서로 짊어지고 대렬을 따라 섰다. 한 젊은 청년은 짐을 지고 가며 한 대원에게 자기도 인민 혁명군에 입대시켜 달라고 졸라댔다.

보천보에 공산군이 쳐들어 왔다 하는 급보가 혜산 경찰서에 울려 오자 놈들은 대경 실색하였다. 이 급보는 경찰서를 통해 함남도 경찰부, 조선 총독부 경부국으로 다시 그것은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까지 삽시에 퍼졌다. 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 정보 기관, 중요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으로 전파를 타고 퍼졌다. 일제놈들은 도처에서 흉흉했으며 긴장했으며 수군덕거리였다. 함남도 경찰부는 우선 혜산 경찰서에 긴급 출동하여 추격하라는 엄명을 내리였다.

혜산서 오가와 경부는 밤'중으로 관내 경관들을 비상 소집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격으로 오가와 경부는 추격만 하면 대뜸 인민 혁명군을 소탕할 듯이 호언 장담을 하며 출발을 재촉했다. 200 여 명의 경찰이 무장을 갖추고 출발을 기다렸다. 그러나 놈들은 밤'중에는 무서워 떠나지 못하고 날이 밝자 보천보를 향하여 출발했다. 경찰들은 화염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보천보 시가를 통과해 인민 혁명군 부대가 철수한 장백현 13도구 구시'골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마침 보천보를 떠나 구시'골 북쪽 산상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 혁명군 부대는 백 여명 밖에 안 되는 경찰군이 추격해 온다는 정보를 받고 산상에 포치되여 적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경찰군은 혁명군이 멀리 갔을거라 예측하고 아군이 포치된 삼태기 같은 골짜기 안으로 기여 들었다.

독자들 상상해 보라! 오가와 경부가 인솔한 이백 여 명 경찰군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겠는가? 독안에 든 쥐꼴이 된 경찰군 200 여 명은 불과 몇 시간 이내에 총탄과 돌 벼락을 맞고 몇 안되는 놈들만이 간신히 목숨을 구해 도망쳤다. 이것이 바로 6월 5일에 진행된 유명한 구시'골 전투였다. 일제 군경들은 더욱 혀를 내 둘렀다. 《철벽의 방선》이니 《무적 황군》이니 하는 신화는 조선 인민들 앞에 산산이 쪼각이 나고 말았다.

4

오풍동 서 분옥은 아침에 일찍 물'동이를 이고 우물터로 나갔다. 마침 웬 로인 하나가 허덕허덕 올라 오고 있었다. 서 분옥은 로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로인은 숨이 차하며 어제밤 보천보에 김 일성 장군 부대가 쳐들어 와서 왜놈들을 때려 눕히고 그 기관들을 모조리 불 살라 버리고 돌아 갔는데 날이 밝으면 혜산에서 순사 놈들이 쓸어 들어 살기가 등등해 돌아치는 바람에 피해 나온다고 말했다. 분옥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데 계신가요?》

하고 흥분해서 물었다.

《모르오,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하여튼 이 늙은이 속까지 다 시원하우. 경찰놈들이 쩔쩔 매는 꼴이란 가관입데다.》

분옥은 남편 시욱이가 장백엘 다녀 온 후 인민 혁명군이 국내로 진공하지나 않나 하는 것을 감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쯤 있을지 또 어느 지점으로 진공을 할지는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 이 말을 듣고 보니 일변 놀라우면서도 감격과 기운이 한 몸에 뻐치였다. 분옥은 그분들이 지금쯤 어느 지점에 있으며 오늘 밤은 혜산쯤 진공을 하지 않을가, 그렇게 되면 우리 부녀 회원들은 무슨 일로 그분들을 도와 드리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뒤설레였다. 분옥은 물을 깄는 것도 잊어 버리고 빈 동이를 인 채 급히 집으로 뛰여 왔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야 겠다는 의무감이 앞에 떠 올랐기 때문이다.

이 날 따라 남편 시욱은 동리 반일회 간부들 몇 사람과 같이 밭 김을 맨다고 날이 밝기 전부터 산 우 밭으로 올라 가 있었다. 분옥은 시어머니께 보천보 이야기를 흥이 나서 큰 소리로 알려 드리며 남편의 아침 밥을 부지런히 챙겨 들고 산 우 밭으로 허둥지둥 올라 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밭에는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밭김을 맨 자리도 보이지 않는다.

분옥은 분명 이 밭으로 온다고 했는데 하며 잠시 서서 주위를 둘러 보는데 저쪽 숲 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분옥은 얼른 거기로 갔다. 시욱을 비롯한 간부 동무들 네댓 명이 모두 풀 우에 드러 누워 있었다. 분옥이가 먼저 그 말부터 했다.

《그래?》

하고 시욱이가 일어 났다. 다른 동무들도 일어 났다.

《그럼 모두들 내려 가지.》

시욱이가 앞을 섰다. 시욱의 집에 들어 선 동무들은 잠시 의논을 하다가 시욱이가 분옥을 불렀다.

《당신이 보천에 갔다 와야겠소. 경계가 심할테니 남자들은 보낼 수 없소. 어떻게 하나 시가지까지 들어가 타버린 자리며 놈들의 동태, 경비 정형 일체를 잘 알아 가지고 오. 갈 수 있지?》

분옥은 남편의 명령이라기보다 이것은 조직의 명령이요, 혁명이 주는 과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금시 용기가 치솟았다.

《갔다 오겠어요.》



분옥은 급히 감자 두 말을 자루에 넣어 이고 보천보를 향해 떠났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일이라 참아 막지는 못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린 손주를 업고 밖에 나와 며누리가 안보일 때까지 바래고 있었다…

…얼마 후 성호는 어슬렁어슬렁 주재소 앞으로 지나 갔다. 이 때 영을이가 뛰여 나오며 성호를 불렀다.

《여보 긴 상, 긴 상!》

《네?》

《좀 들어오. 빨리》

성호는 일부러 웬일인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주재소로 들어 갔다. 안에는 이미 구장과 각 부락 촌장들 그리고 순사 앞잡이들, 그 외에 반일회 동무 서너 사람이 모여 있었다.

《긴 상! 지난 밤에 공산군이 보천보를 습격했소. 자위단을 빨리 조직해 내세워야 하겠는데 좀 도와 줘야하겠소.》

김 영을은 얼굴이 파래서 서둘렀다. 부장이 무엇이 바쁜지 숨을 몰며 들어 서더니 성호를 보자 마치 구제선이라도 만난듯 다급히 말했다.

《아, 긴 상! 잘 왔소. 우리 부락을 수비해야 하겠소, 보천보에 공산군이 쳐들어 왔소!》

《그랬습니까? 그것 야단 났군요, 그래 전과는 어떻게 되였답니까?》

성호가 호겁을 부리며 물었다.

《말이나 마오, 지금 전투 중인데 알 수 없소, 빨리 자위단을 짜서 내보내야겠소. 긴 상도 이런 때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오.》

《네 알겠습니다. 부락을 보호해야지요. 저는 사실 래일부터 결치기에 나가 일을 하게 되였는데 야단 났습니다.》

《무슨 소리나 하오. 결치기도 상점 다 닫았소. 통행 금지요. 당분간 낮이고 밤이고 아무데도 못 가오.》

성호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영을이가 성호에게 자위단 설만한 든든한 사람으로 명단을 하나 만들어 보라 했다. 구장은 밭에 나간 젊은 농군들을 불러 오기 위해 직접 나가 돌아 다니였다. 성호는 열성을 보이며 명단을 짰다. 알쭌한 하부 조직원들을 먼저 쓰고 요즈음 경향이 좋아진다는 사람들 이름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는 자위단 지도부로 구장, 학교 교장, 촌장들, 친일 분자들, 지주, 부농 나부랭이들 모두 써 넣었다. 영을이가 명단을 들여다 보더니 《이만하면 설만한 사람은 다 들어 있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 온다?》 영을이가 걱정하며 명단을 들고 부장실로 들어 갔다. 성호는 세 동무에게 눈짓으로 약속을 했다. 부장이 명단을 들고 나왔다.

《아 이놈의 구장 어데 갔는가, 여보 긴 상 이것 좀 모아 오는데 도와 주, 자위단 배치가 늦었단 말야.》

이 때 일본 순사 두 놈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들어왔다. 부장이 엄하게 물었다.

《준비 다 되였는가?》

《넷 다 되였습니다.》

성호는 무슨 전투 준비를 하나보다 했다. 그러자 부장이

《여보 긴 상, 혜산까지 갈사람 6 명만 선발할 수 없을가?》

부장은 동리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성호에게 매달리는게 이런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았다.

《글쎄요. 사람들이 우선 모여 와야 하겠는데요. 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계도 심하고 하니 혜산 가는 것은 저 촌장님들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고 성호가 앉아 있는 촌장들을 둘러 보았다. 촌장들은 무서워서 감히 일어 서지 못한다.

《촌장들이 좋겠소. 몇 사람 수고해 주.》

부장이 말을 하자 마지못해 젊은 촌장 셋이 가겠다고 나섰다. 아직도 세 사람 부족이다. 성호가 하부 동무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혜산까지 갈 생각 없소? 이렇게 위급한 때는 좀 자진해 나서 주면 좋겠소.》

그러자 세 동무가 나섰다. 성호는 이렇게 동무들을 보내면서도 대체 무슨 용무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 궁금했다. 그럴지음, 갑자기 밖에서 떠들며 녀자들과 아이들이 주재소 안으로 밀려 들었다. 성호는 그것을 보자 너무도 기가 막혀 하마트면 웃음이 탁 터질 번했다. 부장 녀편네를 비롯한 일본 순사 녀편네들과 그 자식들이 모두 조선 옷차림을 하고 기가 죽어 들어 서는 것이였다. 일본 녀자들이 머리는 다 까불까불한데 옷은 농촌 녀자들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웃으운가? 거기다가 옷이 맞지 않고 또 잘 입을 줄도 몰라 서투르게 입은 것이 더 꼴불견이였다.

(흥 네놈들이 인제야 혼이 났구나, 녀편네들을 모두 저 꼴을 만들어 놓았으니) 성호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했다. 그 중에는 또 김 영을과 백 순사 마누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끼여 있는데 이것들은 그래도 모양을 내서 더 웃으웠다.

《자 그럼 빨리 떠나도록 해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아이들을 좀 업어 주란 말이다. 그럼 빨리빨리 떠낫.》

부장은 속은 텡텡 곯았으나 겉으로는 위풍을 갖추며 허세를 부렸다. 일본 녀자들이 나가며 막 느끼여 울었다. 남편을 이런 위험 지구에 두고 가는게 영영 리별이나 하는것 같아 슬픔은 목을 메우고, 발은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아버지들에게 매달리며 울어 댔다. 주재소 안은 갑자기 초상이 난듯 울음 소리로 진동했다.

(흥, 남의 나라 백성을 백주에 들어와 억압하고 착취하는 놈들에게는 결국 가서는 이런 비

극을 맛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아직도 약과다. 정말로 네 놈 년들의 비극의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성호는 몇 번이고 이런 생각을 되풀이 하며 그들을 다 떠내 보냈다.

자위대 본부는 산'등성에 림시로 만들어 놓은 포대였다. 포대에는 단 한 자루의 보총이 있고 그 보총 속에는 단 두 방의 탄알이 장약되여 있었다. 낮과 초 저녁은 경기관총과 함께 무장한 순사들이 계속 와 있었으나 어둠이 짙들면 먼저 소장놈이 꽁무니를 빼고 다음은 한 시간쯤 있다가 일본 순사놈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더 있다다 조선놈 순사들이 도망 가며 구장과 친일 분자, 순사들의 신복은 남겨둔다. 그러면 다음 구장놈이 먼저 빠지고 슬금슬금 다 내뺀다. 오직 성호만이 자위단들과 함께 포대를 지키고 있다. 놈들은 모두 밤이 되면 어디로 어떻게 공산군이 달려 들지 몰라 겁이 나서 도망 가는 것이다. 다만 탄알 두 알이 들어 있는 보총 한 자루만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그것은 공산군이 나타났을 때 계속 두 방을 쏘라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공산군의 주목을 그 쪽으로 끌게 하며 그 사이 자기들은 뺑소니를 치자는 놈들의 비겁한 술책에서 나온 것이다.

성호는 이 밤을 리용하여 긴급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날 회의 장소는 자위단 본부에서 한 백 메터 내려와 있는 외딴 집이였다. 역시 같은 반일회 동무의 집이였다.

성호는 자위단원들에게 덕산동에서 오는 위원들과 오풍동에서 오는 김 시욱 동지를 그 집으로 안내 하도록 미리 짜 놓았다. 그리고는 자기는 본부에 앉아 있었다. 열 한 시가 지나서 주재소에서 련락이 왔다. 정형을 물으려 온 것이다. 성호는 일부러 아무 일 없으니 래일 사업을 위하여 편히들 주무시라고 일러 보냈다. 그리고는 다른 동무에게 만일 주재소에서 련락이 오면 자위단들 경비 정형을 보러 나갔다고 하고 자기에게 련락을 하게 한 다음 혼자 외딴 집으로 내려 갔다. 시욱을 비롯해 덕산동 용운이, 철주가 이미 와 있었다.

긴급 위원회가 열리였다. 김 시욱으로부터서 분옥이가 하루 종일 보천보에 가서 정찰을 하고 온 정형을 먼저 보고하였다. 다음은 보천보 사건을 계기로 인민들 속에 전파될 여론들을 수습할 뿐 아니라 그 여론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 그에 기초해 반일 사상을 더욱 광범히 침투시키며 앞으로의 승리의 신심을 더욱 확고하게 불러 일으킬 문제, 인민 혁명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광범한 원호 사업을 전개할 문제 그리고 인민 혁명군의 보천보 진공의 력사적 의의를 선전하는 문제 등이 장시간에 걸치여 토의 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성호는 김 일성 장군의 교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특히 앞으로 닥쳐 올 중일 전쟁에 대처한 제반 과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재 검토하였다. 그러면서 성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보천보 사변을 계기로 새로 조성된 정세라고 할가, 놈들의 태도는 급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국경과 오지에 이르기까지 방위 태세가 강화될 것이며 경계가 극심해 질 것이며 경찰들, 형사대들, 앞잡이들 활동이 한층 교활해지고 악랄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활동하기 위하여 우선 이번에 돌발적으로 조직되는 각 부락의 자위단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놈들의 신임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진출이 더 빈번해 질 터인데 만일 우리가 자위단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며 또 장악하는 데만 주력할게 아니라 놈들의 신임을 받아 놈들이 자위단을 정말 믿게 해야 합니다. 다음 자위단을 통해 앞으로 놈들은 일정하게 군사 훈련까지 줄 작정인 모양인데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위단을 장악하고 신임을 쟁취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와 함께 가장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진영 내에 간세 분자들의 침투와 발생을 극력 주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조직은 통일 전선의 조직 원칙에 의해 조직은 확대되고 있으나 그 대신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적의 롱간에 떨어져 자연히 변절을 하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심을 틀어 쥐는 문제, 핵심을 더욱 견고히 육성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김 일성 장군께서 여러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성호의 말은 위원들의 전'적인 찬동을 받았다. 그 의견에 근거해 새로운 결정들을 다시 받은 후 위원회는 일단 끝이 났다.

며칠 뒤 보천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 군경들은 전률과 공포 속에서 보천보와 혜산 사이를 경비하느라고 눈이 뒤집혀 날뛰였다.



보천보를 자기들의 공고한 후방으로 알고 백두산 밀으로 인민 혁명군 부대를 포위 섬멸한다고 기고 만장해 들어 가던 놈들은 보천보가 진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부랴부랴 무장을 거두어 보천보로 내려 왔다. 놈들은 공산군 주력은 백두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후방인 보천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놈들은 군대와 무장 경찰을 주로 보천보를 중심으로 그 주변과 혜산 일대까지 진지를 파고 배치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인 가족들은 혜산에서 백암, 길주 등지로 피난을 했으며 혜산역에는 언제나 신호 하나로 출발할 수 있는 특별 피난 렬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매일 배달되는 국내 각 신문들, 일본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은 보천보 사건과 구시'골에서 전멸을 당한 오가와 경부 이하 백 여 명의 전투 정형을 호외로 찍어 냈을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보도하였다. 이러한 요란한 보도들은 조선에 있는 일본놈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자아 내게 했으며 뜻 있는 조선인들에게 서광의 빛을 안겨 주었다.

특히 갑산 지구에서는 친일 분자, 주구들, 앞잡이들에 이르기까지 동요했으며 인민들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했다. 큰웅덩, 오풍동, 덕산동 기타 조선 민족 해방 동맹 하부 조직들이 박혀 있는 곳의 구장들, 촌장, 앞잡이들은 앞을 다투어 인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아첨했다.

《조선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김 일성 장군 부대는 축지법을 한대요.》

《김 일성 장군은 백두산 정기를 타고 난 앞으로 조선 사람을 거느릴 하늘이 낸 분이라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곳에는 감히 적수를 할만한 사람이 없다오, 그분의 전술은 그러기 때문에 신출귀몰하다오…》

앞잡이들, 친일 주구들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동리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행여나 하여 눈치를 슬금슬금 보았다. 그런 때 심술 궂은 사람이 있으면 의례 이렇게 덧붙였다.

《그 어른이 인제 조선으로 나오시게 되면 왜놈들 앞에서 알랑거리며 붙어 먹던 놈들은 모조리 없애 치운답데.》

그러면 구장이나 촌장 앞잡이들은 속이 떨리여 어떤 구장들은 병을 핑게하고 구장 직업을 벗어 던질려고 애를 바둥바둥 쓰는 놈도 있었다.

한편 그렇게 산 속으로 개 싸다니듯 하며 화전민들을 못 살게 굴던 산림 주사와 간수들은 일체 산으로 올라 가지 못했다. 그 통에 화전민들은 마음 대로 화목을 해 가리였고 새로 땅도 개간했다. 그래 어떤 화전민들은 이해 농사를 아주 잘 지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마음 놓고 잘 살게 해 주는 그분들이 있는 곳을 알았으면 보리 쌀 가마니라도 져다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였다.

선량하고 량심 있는 모든 주민들은 앞잡이들이 무서워 겉으로는 시침을 뗐지만 속으로는 열렬히 김 일성 장군을 흠모했으며 그분이 거느리신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절대한 신뢰를 붙이고 있었다.

(인제는 왜놈들이 조선에서 거꾸러질 날도 머지 않았다. 인제는 조선 인민들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떳떳하게 살 날이 머지 않았다.)

그들은 둘이 만나도 이 이야기, 셋이 만나도 이 이야기, 여럿이 모여도 이 이야기를 내놓고 서로서로 희망에 찬 눈들을 반짝이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호와 시욱을 비롯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원들의 사업은 더욱 눈부시게 전개되였다.

보천보에 오른 홰'불, 이것은 암담하던 조선 인민의 앞길을 활짝 밝혀 주는 서광이였으며 각 지방에서 지하 활동을 하고 있는 조국광복회 국내 각 조직체들에 더 없는 활기를 주었다.

인민을 위한 자기 희생성



옛날 자기 아버지의 두눈을 띄우기 위하여 옥백미 3백석에 몸을 팔아 임당수의 푸른 물'결에 꽃다운 몸을 던진 심청이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달이 가고 해가 거듭될 수록 우리 인민들 속에서 더욱 향기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피여난 한 떨기의 아름다운 꽃인 김 정순 영웅은 자기의 혈육도 아닌 일곱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여위천의 깊은 물'결에 뛰여 들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한 없이 높은 정신적 풍모를 보며 또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조차 서슴치 않는 공산주의적 자기 희생성의 모범을 본다.

김 정순 동무의 이와 같은 영웅적 미거—이는 오로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 대가정 속에서 친형제와 같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하게 살며 동지를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살도 생명도 다 바치는 우리 시대, 우리 제도하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인간에 대한 차디찬 증오와 멸시로 하여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초개와 같이 짓밟히고 있는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야 어찌 이런 일을 꿈엔들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미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인민을 위한 자기 희생성—이는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며 인민을 위한 위업에 전심 전력 복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의 집중적 발현이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자기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흘러 나오는 혁명 정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전 인류를 썩어 빠진 자본주의의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 투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개인의 리익이나 영예, 행복을 첫자리에 내 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인민의 행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자기 일신상의 행복이나 영예, 지어는 청춘과 생명도 기꺼게 바친다.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로서의 그들의 높은 정신 세계와 성격적 특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김 정순 동무는 어찌하여 이와같이 높은 공산주의적 자기 희생성의 모범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결코 김 정순 동무는 본래부터 영웅될 소질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그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수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보통 처녀다.

또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결코 일시적인 흥분이나 그 어떤 우연한 동기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오직 그가 항상 당의 가르침을 따라 혁명 전통 학습과 자체의 공산주의적 수양에 꾸준히 노력하여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자신을 훌륭한 당의 전사로, 수령의 충직한 딸로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의 일상적인 학습과 공산주의적 수양의 결과가 그로하여금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그러한 자기 희생성의 모범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 그가 학습한 155 제목의 회상기 내용을 수록한 수첩이 있다. 우리가 어찌 이 수첩을 무심히 대할 수 있겠는가! 실로 이 귀중한 수첩이 말해 주듯이 김 정순 동무의 영웅적인 소행의 근저에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한구절 한구절 깊이 연구하고 그 혁명 정신을 자기의 피와 살로 되게 한 꾸준한 노력이 안받침되여 있는 것이다. 김 정순 동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연구하면서 언제나 그들처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며 행동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그이들의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에서 힘을 얻었기에 그날도 저는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명의 학생들을 구출하여야 하겠는 데 벌써 나는 힘이 진했고 얼음'장에 찢긴 가슴과 어깨와 등은 찬물에 얼어 들어 운신도 못하리만큼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귀'전에는 물'결 속에서 부상 당한 몸으로 동지를 구원해 내고 자신은 물'속에 잠기면서도 혁명을 위하여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하면서 무기를 동지들에게 넘겨 준 박 세홍 동지의 웨침이 들려 왔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로동당 시대의 청년인

내가 그 귀중한 어린 생명들을 물속에 둔 채 물러 설 수 있겠습니까?…》

학습과 실천의 밀접한 결합—이것을 통하여 김 정순 동무는 혁명 투사들이 걸어 온 길을 고스란히 걸으려하였고 그들이 도달하였던 슬기로운 정신 세계에로 근기 있게 다가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이 항일빨찌산들의 산모범과 고매한 혁명 정신이 김 정순 동무의 붉은 심장에 맥박쳤기에 그는 정신을 가늠키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도 오직 미래에로 활짝 열린 조국의 꽃봉오리들을 위협에서 건지기 위하여 불사조와도 같이 차디찬 강물'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정순 영웅이 발휘한 공산주의적 자기 희생성의 밑바탕에는 그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안받침되여 있다.

그는 평소부터 사람들과 동지들을 깊이 사랑하는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인민 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그러하였다. 그는 비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는 자기보다 어린 동무들을 업어 여위천을 건너 주었으며 그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 가는 기특한 소녀였었다. 학교를 마치고 조합에 나온 후부터는 마을의 로인들과 동리 어른들에게 인사성 밝기로 이름 났었다. 그에게 있어 인민에 대한 개념은 항상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는 동무들, 동리 어른들과 조합원들,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과 깊이 결부되여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합의 재산, 이웃 사람의 운명에 무관심할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한 가정의 일로 여겨지게 되였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효성이 지극한 동무이다. 아침 저녁으로 일을 나갈 때나 돌아 올 때 어머니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어머니가 힘들어 할세라 짬나는 대로 빨래며 식사일을 도맡아 해드리며 어머니에게 회상기 책도 한 조목 한조목 읽어 드렸다.

또한 그는 혁명 동지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였다. 한번은 토끼사에서 순옥이라는 처녀가 사양하는 토끼들이 자꾸만 페사되였다. 처음에 한두마리 쯤 죽을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동무들도 일이 그렇게 되자 내중에는 점차 그 토끼 사양공의 사업을 믿지 않게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오직 정순 동무만은 순옥 동무를 굳게 믿고 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를 도와 나섰다.

토끼의 페사를 방지하고 토끼들에게 풍부한 영양 물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밤 중에 아무도 모르게 허리까지 빠지는 눈무지를 헤치며 왕복 40 리의 선뎌까지 가서 솔잎을 뜯어 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

심지어 그 동무가 통신 기술 학교의 등교 수업을 간 사이에는 양돈공으로서 자기의 본신 임무도 오죽 바쁘랴만 순옥 동무가 관리하든 토끼들까지 맡아 관리하면서 불과 한달 동안에 70 마리로부터 700 마리로 번식시켜 놓았다. 그러면서도 남이 이런 일을 칭찬할 때면 《내가 뭘 했다구…난 그저 그 동무가 등교 수업 가기전에 시키든 대로 했을 뿐이야》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 공로를 동지의 공로로 내세우는 겸손한 성미였었다.

이 자그마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에서도 김 정순 동무의 사람됨을 방불히 그려 볼 수 있지 않는가! 오직 이런 행동들은 공산주의적 자각의 높이에 선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영웅—김 정순, 그는 바로 이렇게 소박하고 겸손하며 인간과 동지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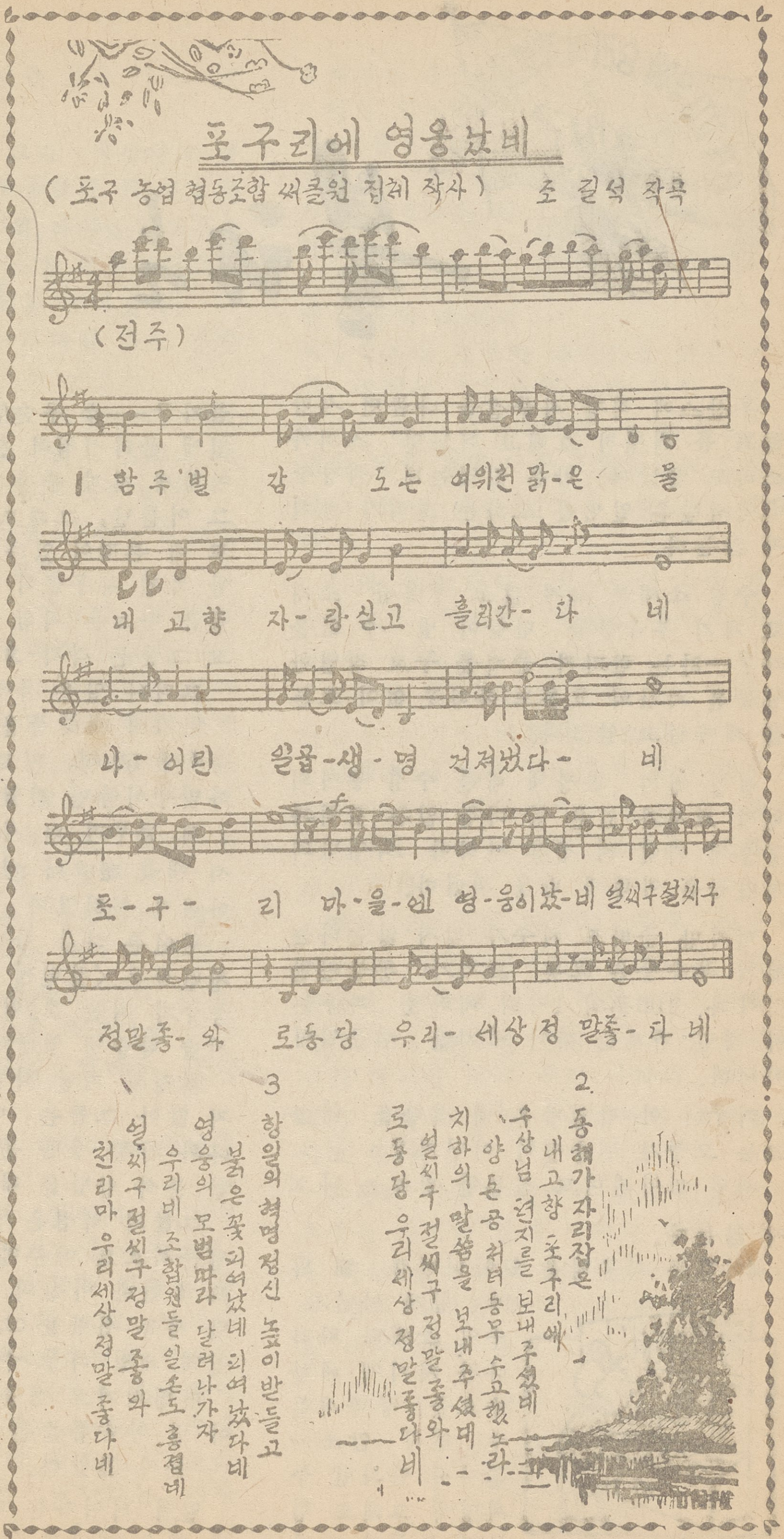
그가 일곱 어린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여위천 깊은 물에 뛰여든 그 영웅적 미거와 자기 희생성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수양과 생활이 깔려 있는 것이다.

김 정순 동무의 모범을 본받자!

우리는 김 정순영웅의 인민을 위한 열렬한 자기 희생성의 정신을 배워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그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의 소박하고 겸손하며 풍부한 인간성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 청년들은 이 땅 우에 공산주의 붉은 꽃송이들이 더욱 많이 피여나게 하여 그 꽃송이들로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뒤덮게 하자!

강 능수





불타는 심장

부산스레 직장 사무실을 나들던 사람들도 뜸 해진지 오래고 어느덧 스피카 소리도 끝났다. 밤은 깊었는데 직장장실에서만은 열변을 토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수입 소재를 쓰지 않고 국내산 소재로 계기 부속품을 만들어 낼 수 없을가?—하는 한가지 문제를 두고 작업반원들은 시간의 흐름도 아랑곳 없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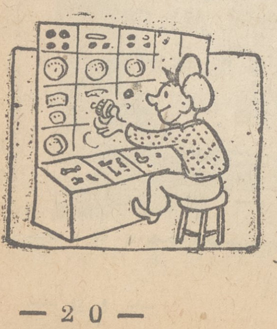
평양 전기 공장에 대한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가 있은 날 다함 없는 감격과 흥분에 싸인 최 선홍 천리마 작업반의 청년들은 이렇게 밤을 새웠다.

먼지만 올라도 치수가 맞지 않는다는 계기 부속품은 보통 크기가 콩알만한 것이다. 100분의 1미리 메터를 다투는 이 정밀 기계를 깎아 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작업반은 네 사람을 내놓고는 모두가 견습공이 아닌가?

새벽 녘이되여도 신통한 방도는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마음먹은 일이니만큼 해 봐야 할게 아닌가. 수입 소재만 바라다간 계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지 않소… 혼자서 안되면 두세명씩 그래도 힘들면 모두가 달라



붙자구……》 무슨일이든 끝장을 내기 전에 물러선적이 없는 최 사길 동무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 밀었다.

그 이튿날, 그래도 자동 선반에 손이라도 대 본적이 있다는 최 사길, 김 도찬, 한 국진 동무들이 국내산 소재로 부속품을 만드는 시험 생산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들은 각각 교대별로 갈라졌다.

그러나 일은 시작부터 써원치 않았다.

한가지 부속품을 깎아 내자면 선반 부속을 50 개, 때로는 100 개 이상씩 가라맞추어야만 하였다.

세 동무가 련 사흘을 꼬박 새워가면서 애를 썼으나 단 한가지 부속품도 깎아내지 못하였다.

원인은 다름 아닌 기술 부족이였다. 청년들은 〈첫번째 목표는 자동 선반에 능수가 되는 것〉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기술 학습에 열중하였다.

제정된 기술 학습 시간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그들은 매일 두 시간씩 빨리 나와 자동 선반 운전법이며 소재에 대한 분석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직심은 끝내 은을 내였다. 전문적으로 다루던 외국 기술자도 적어도 1년반 이상의 견습 기간이 필요하다던 자동 선반을 그들은 녁달도 채 되기 전에 제법 다룰 수 있게 되였던 것이다.

단번치기로 성공한적은 없었으나 깎아 낸 부속품들은 수입 소재로 만든 것에 못지 않았다.

일이 되여가는 재미에 그 누구도 기대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연히 곤난은 앞을 가로 막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들은 보다 복잡하고 몇갑절씩 품이드는 부속품들인 데 그중에서도 적산 전력계의"웜"라사는 그것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선반 조정 시간만도, 18시간씩이나 걸리는 것이였다.

"웜"라사만 만들어 낸다면 다른 부속품들은 헐하게 해 낼 수 있었다.

그들은 기술자들과도 토의하고 외국 서적들도 샅샅히 뒤져봤다. 그러나 신통한 방법을 찾아 내지는 못하였다.

토론을 거듭하던 그들은 지난 6 개월간의 작업 일지를 뒤졌다.

지난기간 자기들이 만들어 낸 매개 부속품 마다에 깃들어있는 특징과 그것들을 가공할때 마다 겪어야 했던 어려운 고비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던 과정에서 그들은 마침내 "웜"라사를 만드는 조정법을 탐구할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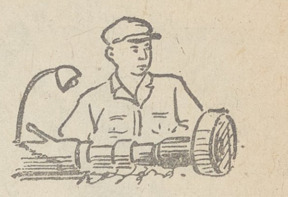
첫 시험 생산이 진행되던 날…모여선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였다.

그러나 시험 생산은 기대와는 달리 실패 하였다. 이번에는 소재의 배합비와 규격이 잘 못 되였다는 것이 였다.

소재의 금속 배합비를 맞춘다는 것은 공장 내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이쯤한 일에 굴복하는 청년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기대 옆에서 회상기 모임을 가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어느 누가 가져다 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필요할 때는 생명을 바쳐가면서 식량도, 무기도, 피복도 획득하여 일제놈들과 싸워 이겼다.…항일 투사들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본받아 기어코 만들어 내리라! 혁명하는 사람에게 주저 앉을 권리가 없다.) 천리마 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새롭게 굳은 결심이 다져졌고 온 몸에는 새힘이 부쩍부쩍 솟았다.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후 그들은 드디여 "웜"라사 가공에 성공한 것이였다.

그들은 자동 선반을 수입 소재의 배합비에만 맞추어 조정하던 것을 국내산 소재의 배합비에 맞게 회전 속도와 이송량을 조정함으로써 "웜"라사도, 그밖에 애를 먹던 다른 부속품들도 헐하게 깎아 낼 수 있는 비결을 찾아 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2 백여종의 각종 계기 부속품은 완전히 국내산 소재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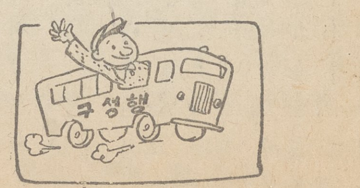
그러나 최 선홍 천리마 작업반의 청년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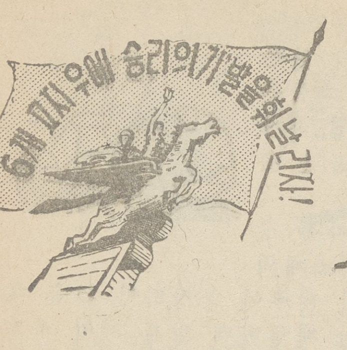
그들은 부속품 생산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공구며 지구까지도 일체 수입품에 의존하던 것을 완전히 자체로 만들어 쓰고 있다.

한해 전까지만 하여도 자동 선반에 대해서 생퉁이들이였던 그들은 지금 훌륭한 기능공으로 자랐으며 작년보다 3 배나 높아진 금년도 계기 부속품 생산 계획을 일체 우리 나라의 것, 자체의 기술로 매월 매분기마다 초과완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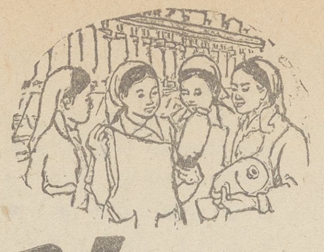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낳게 하였는가? 그것은 자기들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은 어떤 곤난과 애로가 있드라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로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청원들의 불타는 심장이 였다.

본사 기자 강 용문





그 처녀의 심정



구성 방직 공장의 리 봉녀 동무는 공장 민청 위원회에 비치된 《붉은 등록장》의 첫 페지에 오르는 영예를 지녔다.

그가 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954년 1월 29일 수상님께서 이 공장에 찾아 오신 후 부터였다. 봉녀는 그때 공장에 갓 들어온 어린 로동자였다. 수상님을 우러러 뵈옵는 봉녀의 가슴은 높이 뛰였다. 이 날 수상님은 《방직은 예술》이라고 하시면서 생산 문화를 높이고 제품의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셨다.

봉녀는 수상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나라의 방직 기술을 세계적 수준에로 끌어 올려 그이의 기대에 보답하는 붉은 방직공이 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날부터 봉녀의 남다른 노력이 시작되였다.

봉녀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다. 자기 집 방안에 책상이며 밥상, 가구들을 즐느런히 배치해 놓고는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순회 동작을 련습하였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실꾸러미를 들고 계사 동작을 련습하였다. 아침에는 남보다 두시간 먼저 나오고 저녁에는 두시간 늦게 집으로 돌아 가면서 자기보다 기능 급수가 높은 정방공들의 기대 옆에 붙어 서서 그의 순회 방법이며 계사 동작을 하나하나 눈 여겨 살피기도 하였다. 봉녀의 남다른 노력은 생활에서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의 기능은 날마다 시간마다 눈부시게 발전해 나갔다.

그리하여 봉녀는 남들이 자기와 같은 햇내기로서는 어림도 없으리라든 정방기 400 추를 담당하여 보란 듯이 해내였고 다음은 600추, 800추로 담당 기대수를 점차 높였다. 기능 수준은 보통 한 두달이면 한급씩 뛰여 올라 공장에 들어 온지 불과 1 년 후에는 어엿한 최고 기능공인 7급공이 되였다.

《일이 사랑이다.》라는 옛말이 있다. 이제는 온 직장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였다. 그는 날마다 자기 계획을 200 % 이상 씩 넘쳐 실행했으며 1956년 말에는 3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235 %로 초과 완수하였다. 그로하여 봉녀는 국가로 부터 공로 메달을 받았고 민청 중앙 위원회의 영예 등록 표창을 받았다.

봉녀의 또하나의 귀중한 성품은 생활에서 자만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 칭찬하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다. 아무리 새 기록을 돌파한 날에도 집에 돌아가서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을 총화해 보고 (나는 아직 멀었어…)하고 가볍게 한숨을 쉬는 처녀다.

그는 혁신의 불'길을 높이면서 1천추로부터 1,200 추로 계속 자기의 담당 기대수를 높여 나갔다. 생산이 밀리기나 할 때면 아예 직장 사무실에서 자고 깨면서 집에도 돌아 가지 않았다. 재밤 중에 동무들을 모아 놓고 생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자기의 기능을 배워 주기도 했다. 남다른 그의 열성은 꽃이 되고 열매로 맺혔다. 그는 또다시 그렇게도 어려운 과업이였던 5개 년 인민 경제 계획을 1959년 4월까지 103.5%로 실행했으며 1960년도 말에는 212 %로 초과 완수하는 새로운 기적을 낳아 놓았다. 그러면서도 신입 로동자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 50 여 명이나 기능공으로 양성해 내였다. 그는 또다시 국가로부터 로력 훈장을 수여 받았다.

봉녀는 작업반 선동원으로 9명의 뒤떨어진 동지들을 적극 분자로 교양하여 자기가 일하는 작업반으로 하여금 천리마 작업반으로 되게 하였고 그 후에는 영웅 길 확실의 모범을 본 받아 직장 내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작업반을 자진 담당해 가지고 반장 공작을 수행하면서 불과 1 년 동안에 그를 또다시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게 하였다.

봉녀는 공장에 들어 온 이래 9 년 동안을 단 하루의 결근과 지각, 조퇴도 없었다.

생각해 보라! 9 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오동통 하고 애티있는 홍안의 소녀로 공장에 왔던 그가 어느덧 숙성한 처녀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이 기나긴 9 년 세월, 비가 올 때나 압록강 반의 설한풍이 휘몰아칠 때나 단 하루의 결근도 없었다. 그에게는 언제나 혁명이 첫자리에 놓였던 것이다.

한번은 감기에 걸려 몸에 몹시 열이 났었다. 그는 자기 집으로부터 공장에 이르는 고개'길을 넘으면서 세번이나 길섶에 누웠다가 일어나군 하였다. 그는 생각하였다.…정주 땅 어느 한 지주의 집에서 머슴으로 늙어 온 아버지, 파란 풍진을 다 겪으며 눈물로 옷고름을 적이던 어머니, 어느해엔가 가난이 원쑤되여 남몰래 자살하려 떠난 아버지를 찾아 온 가족이 울며 불며 야밤의 심산'속을 헤매던 일, 그때 요행 아버지는 구원됐어도 그후 고생덕에 얻어 만난 병으로 하여 끝내 세상 떠난일, 이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러던 우리 집을 잘 살게 한 것이 과연 누군가! 지금은 옛날의 부자도 부럽지 않게 생활이 늘었다. 게다가 나는 지금 영예로운 후보 당원으로, 군 민청 위원으로, 국가 수훈자로 되였다. 두번 다시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남이 한발짝 뛸 새 열발짝 백발짝 뛰여도 성차지 않을 내가 아닌가!)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가 공장에 왔을 때 동무들은 그를 걱정해 주면서 하루쯤 푹 쉬라고 말렸다. 그러나 봉녀는 도리머리를 하며 말했다.

《걱정들 말라구, 뭘 감기쯤 가지구, 내 병은 그저 일'손이 약'손이라니까…》

그러면서 휭하니 자기 기대 쪽으로 달려 가는 것이였다. 그날도 봉녀는 자기 계획을 300 %나 넘쳐 실행하였다.

바로 이러한 봉녀이기에 금년도 여섯개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자기의 년간 계획을 벌써 4월 24일 현재로 109 %로 넘쳐 실행하였던 것이다.

본사 기자 한 희만

지상강좌

인류의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이다

최 북 성

계급도 없고 착취도 없던 원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된 수천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력사는 계급적 대립, 계급 투쟁 가운데서 발전해 왔다.

아득한 옛날부터 벌써 발전된 문명의 빛을 뿌리던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동방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대략 5,000 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라파에서도 3,000 년을 계산하고 있다.

첫 계급 사회였던 노예 소유자 사회, 그를 뒤'이어 나타난 봉건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전체 력사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 나라 고대 노예 소유자 사회에서는 귀족인 대가를 반대하는 노예 및 하호 (예속 농민)들의 투쟁이 빈번히 일어 났으며 봉건 사회에 들어 오면서부터는 귀족 량반 계급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빈번하였다.

실례로 896 년의 붉은 바지 폭동(적고 농민 폭동) 1077년의 망이 폭동, 1467년의 함경도 농민 폭동《리 시애의란》1810년 대의 평안도 농민들의 투쟁(《홍경래의 란》) 등을 볼 수 있으며, 유명한 갑오 농민 전쟁은 1894년부터 1895년에 걸쳐서 진행된 대 규모의 날카로운 계급 투쟁이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은 침략자 일제와 그 주구들인 반동적 착취 계급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투쟁은 1920년 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앙양되였는바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920년~1930년 간에 891 건의 파업이 일어 났다. 같은 기간 또한 3,807 건의 농민 투쟁(주로 소작 쟁의)이 일어 났다.

원산 총 파업을 계기로 이러한 투쟁들은 빈번히 폭동적 진출에 이르렀는바 례컨대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폭동, 단천 농민 폭동 등이 그러하다.

특히 1930 년 대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무장 투쟁이 전개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은 민족 해방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통일된 계급 투쟁이였다.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 많은 인민들이 수다한 계급 투쟁들을 거쳤으며 또 거치고 있다.

특히 혁명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반동 계급과 혁명 계급의 투쟁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원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여 온 모든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공산당 선언 참조)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은 결코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있는 착취 계급과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착취 계급의 리해 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례컨대 지주는 농민들의 피땀을 혹독하게 짜내야만 잘 살 수 있는데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아 내야 하며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 나야 한다.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은 이와 같이 서로 리해 관계가 적대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불피코 날카로운 계급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적 착취자들과 그들을 변호하는 어용 《리론가》들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서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협조해야 한다고 지꺼린다.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은 어차피 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것 만큼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착취자들을 옹호하는 《리론》이며 근로 대중에게 영원히 노예살이를 하라는 악랄한 설교이다.

계급 투쟁은 사회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노예 소유자 사회는 노예주를 반대하는 노예들의 투쟁, 폭동에 의하여 그보다는 발전된 봉건 사회로 교체되였으며 봉건 사회 역시 령주들을 반대하는 농노—농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멸망되고 보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수립되였다. 마지막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으로 충만되여 있는데 이 투쟁에서 로동 계급이 승리함으로써 그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로 교체된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적대 계급으로 분렬된 사회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하는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인류 사회는 새로운 사회 제도로 교체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된다. 그런데 착취 받고 압박 받는 계급은 자기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낡은 사회 제도를 청산하는데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와 반대로 반동적 착취 계급은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낡은 사회 제도를 유지 하려고 발악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근로 대중의 진출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혹독하게 탄압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착취 근로 대중이 반동적 지배 계급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낡은 사회 제도를 전복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계급 사회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하며, 계급 투쟁이 사회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리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피착취 계급의 투쟁이 사회 발전에서 동일한 역할을 노는 것은 아니다. 노예들의 투쟁이나 농노—농민들의 투쟁은 낡아 빠진 사회를 멸망에로 이끌었고 그것을 새로운 제도로 교체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제도는 달라졌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의연히 남아 있었다.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터나쇼날의 노래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도, 임금도, 영웅도》 그 누구도 로동 계급을 구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혁명적 수령,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해방을 쟁취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적대적 계급으로 분렬된 사회 제도를 전복함으로써 압박받고 착취받는 모든 사람을 해방한다. 왜냐하면 로동 계급은 비단 착취 받고 천대 받는 계급일 뿐만 아니라 력사상 가장 선진적이고 철저히 혁명적이며 단결력과 조직성이 강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혁명적 로동 계급만이 마지막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으며 전체 피압박 근로 대중의 령도자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개된다.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과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 파업과 폭동 등등… 그리고 계급 투쟁은 사상, 의식, 문화면에도 반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투쟁을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경제 투쟁이 중요하다고 떠벌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 투쟁만 잘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잘 살게 될 것이며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그만이라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도 경제 투쟁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로동 계급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될 수 없다.

로동 계급이 원대한 력사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 밑에 정치 투쟁을 해야 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정치 투쟁이야 말로 계급 투쟁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말하여 준다. 영국이나 미국의 로동 계급이 계급 투쟁을 진행한지는 벌써 100 년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쟁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연 자본가들의 임금 노예로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은 비록 그 력사는 청소하지만 특히 1930년 대 이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정치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해방 후 자기 손에 정권을 튼튼히 틀어 쥘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로동 계급은 정치 투쟁을 통하여서만, 그의 격렬한 형태인 혁명을 통하여서만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의 정권 전취, 프로레타리아 독재 수립으로써 계급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은 낡은 경제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사회주의적 경제와 문화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업은 오직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착취 계급들이 낡은 제도를 복구하기 위하여 새 제도에 반항하여 나서기 때문이며 외래 제국주의자들이 그들과 야합하여 혁명을 말살시키려고 날뛰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은 낡은 사상 의식, 낡은 도덕, 낡은 유습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된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이 날카로운 계급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반 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비록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였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계급 투쟁이였으며, 소생산자들의 사회주의적 협동화 역시 계급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그를 최단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극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시도를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면서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단결할 수 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우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켰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은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왜 우리는 계급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성과에 대하여 증오를 품으며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 착취자들은 없지만 전복된 이전의 착취자들은 의연히 남아 있다. 그들 중 극 소수의 악질 분자들은 아직도 미제와 남조선 반동 세력에 기대를 걸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제와 그의 졸개들은 이자들을 발판으로 삼아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키고 있으며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류포시키려고 날뛰고 있다.

특히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할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에 머물 수 없다. 중요한 문제는 혁명 기지—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와 화목의 분위기에 충만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리며 원쑤들이 발붙일 수 있는 그 어떤 틈도 주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한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마치와 괭이를 들고 혁명 선렬들이 백두산에서 싸울 때 지니고 있던 정신 그대로,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그러한 각오와 기세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

❊ ❊ ❊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저주로운 일을 정당화하려는 반동적 《리론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회의 계급적 분렬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계급 투쟁도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은 이미 사회가 적대적 계급으로 분렬된 현상을 청산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전제를 조성하여 놓았다. 그리고 이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현실로 되였다. 우리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온 지구상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사회의 계급적 대립, 계급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로동 계급의 철저한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북반부에서 근로자들의 락원인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 때, 하루바삐 조국을 통일시키고 우리 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할 때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그만큼 촉진될 것이며 전 지구상에 계급이 없고 착취도 억압도 없는 인류의 리상—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과연 학습시간이 없는가

나는 가끔 우리 동무들이 《농사 일이 바쁘다나니 학습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군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따져 묻군 한다. 과연 학습할 시간이 없는가? 하고

그래서 하루의 로동과 그들의 일과를 따져 나가느라면 학습할 시간은 충분히 나오는 것이다.

이런 때마다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한 동무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그것이 한갓 구실이였다는 것을 자인하군 한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학습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뚜렷한 학습 목적과 면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나는 생산에서 유리되지 않고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3 년 내로 농산 기수가 되고 나아가서는 기사가 될 결심을 하였다.

뚜렷한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는 면밀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번기에는 하루 2 시간 이상, 농한기에는 4 시간 이상의 학습을 보장할 계획을 짰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학습 계획은 그날로 완수하군 하였다.

그러나 밤 학습 만으로써는 학습 계획을 다 해낼 수 없었다. 그것은 문예 서적도 읽어야 하며 자기의 문화적 소양도 높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간단히 읽고 리해할 수 있는 문예 서적이나 《벼》, 《옥수수》, 《비료》 같은 기술 서적들은 작업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 기타 토막 시간을 리용했으며 달구지를 몰고 먼길을 갈 때에는 걸으면서도 책을 읽었다. 아침 저녁 작업 장소에 오가는 시간은 수학과 자연 과학의 공식, 로어의 단어들을 외우는 시간으로 리용하였다.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 평균 1~2 시간은 되였다.

이리하여 나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짬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

모내기 할 때에는 허리춤에 책을 끼고 다녔고 두터운 책들은 가지고 다니기에 간편하고 보기 쉽게 제목 별로 분책을 만들었다.

나는 학습 방법에도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그만큼 학습 시간을 더 쟁취할 수 있게 한다.

당 정책 학습과 리론적이며 리해가 힘든 물리, 수학, 식물, 생리학 등 기술 학습들은 주로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했다.

그리고 나는 학습회나 기술 크루쇼크에 적극 참가하였다. 학습에서 동무들과 함께 광범한 토론들도 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과정에서 자기의 지식을 더욱 넓힐 수가 있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기술 크루쇼크에서 습지대에서 랭상모 발아률이 좋다고 책에서 본 그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한 동무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판에서는 습지대보다 건판 지대가 더 발아률이 좋다는 것이였다.

광범한 토론과 론쟁 끝에 이것은 온도 조절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깊이 리해하게 하였으며 실제 생산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나는 학습을 될수록 현실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농산 작업 자체를 학습 과정으로 전환시켰다.

나는 식물학을 학습하면서 우리 조합에서 그 식물 표본을 찾기 위하여 애썼으며 없는 것은 종자를 구해다 직접 가꾸면서 그 식물의 특성과 성장 상태를 연구하였다. 나는 뜨락또르 기술 기초를 학습하면서 처음에는 책만 보고 많은 부속의 명칭과 그 사명들을 암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인차 잊어버리여 다시 학습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민청 조직의 방조를 받아 농기계 작업소에 가서 실지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일을 도와 주면서 배운 결과 훨씬 짧은 시간에 확고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학습을 잘하자면 건전한 체력을 소유해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랭수 마찰을 하고 조기 체조, 철봉, 목봉 등을 계속하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서 네 과목을 합격하였다.

나는 자신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농촌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학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릇된 견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평북 룡천군 신암리 김 명 식

최우등의 《비결》



나는 일하면서 공장 대학에서 배우고 있다. 나는 3년간 최우등을 하고 있는데 종종 동무들로부터 그 《비결》이 어데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이런 때이면 나 자신도 대답에 궁하군 한다. 곰곰히 생각해 봐도 이렇다할 《비결》은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만 몇 가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완강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공장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은 수학이였다. 사실 삼각함수도 제대로 모르는 내가 고등 수학인 미분, 적분을 배우다보니 걸음마다 앞이 가로 막혔다. 한 번은 교원이 제시해 준 응용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 보려고 마음 먹고 사흘밤을 새우다 싶이 하였으나 끝내 풀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우선 초보적인 문제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기로 결심한 나는 고중용 수학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매일 같이 동무들을 따라 다니며 배우기도 하고 교원에게 찾아가 개별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이악하게 노력한 덕으로 나는 한 학기 어간에 비교적 수준이 높은 동무들을 따라 잡을 수가 있었다.

《천재—이것은 근면이다》라고 한 말은 옳다고 생각한다. 비상한 정력과 완강한 노력만 있으면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일부 동무들은 학습하는데서 쉬운 문제는 쉽다고 그냥 넘겨 버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스쳐 버리는 일들이 자주 있다. 로동이나 학습이나를 막론하고 건숭건숭 지나쳐 버리는 것은 극히 해로운 일이다.

한 가지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한 문제라도 스쳐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정치 학습에서는 주로 토론의 방법이 효과적이고 기술 학습에서는 실제 생산 로동과 특히는 창의 고안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내가 일하는 질안 직장에서 애로의 하나는 립상화탑에 비료가 붙는 것인데 그것을 까버리자면 한 달에도 근 100여 공수의 로력이 들군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물로써 씻어 내는 창의 고안을 할려고 생각하고 《화학 공정 및 장치》 《전기 공학》의 과목 학습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하였다.

한번은 교수 시간에 배관의 저항에 대한 문제를 배우게 되였다. 이것은 내가 창안하려는 배관 장치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나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다. 나는 교원에게 달려가 그의 지도를 받았고 졸업생들의 론문까지 연구하면서 배관의 저항에 대한 문제를 확고한 지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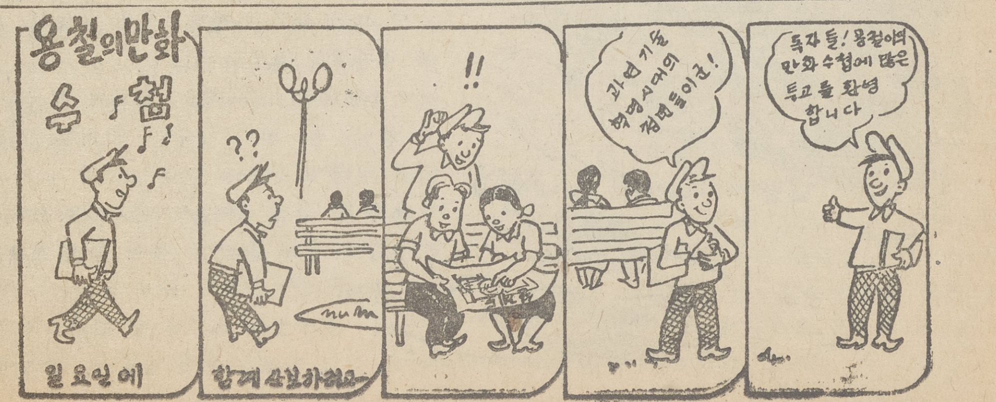
일하면서 배우는 우리들은 토막 시간도 잘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학습 과정에 모르는 문제들과 애매한 문제들은 꼭꼭 수첩에 써 두었다가 동무들에게 묻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들을 묻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들은 학습에서 언제나 허심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최우등의 《비결》이라고 할가? 사실 나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거듭 말한다면 진지한 학구적 태도를 가지고 완강히 노력한다면 누구나가 다 학습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흥남 비료 공장질안 직장 장 성 구





수상한 신호

음산한 밤. 뭇새들도 깃을 치며 갈숲에 숨어 버리자 괴괴한 정적 속에 철석이는 강물 소리만이 들려 온다. 머리 우에 무겁게 떠돌던 먹장 구름도 남동풍에 서서히 몰려가고 진한 안개는 강안을 뒤덮었다.

그런탓으로 사위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여기는 분계선 마을. 적진을 코 앞에 둔 강'기슭의 초소에서 월정 농업 협동 조합 로창환 동무는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아까 교대할적에 인계 받은 정황을 빼 놓지 않고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

(오늘 문수산으로 오르내린 미국놈들의 자동차는 21 대, 미군 장교 한놈이 강'가에서 낚시질을 했고 오늘은 유달리 어지러운 총 소리가 자주 들려 왔다.)

이 모든 사실은 창환이에게 고도의 긴장성과 경각성을 요구했다.

미국놈들의 발'바닥을 핥으며 개노릇을 하는 간첩들은 안개 자욱한 이러한 밤에 흔히 강을 건너 오군했다.

얼마 후 짙은 안개가 차츰 사라지자 검은 구름 사이로 별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 밀었다.

원쑤들이 도사린 강 건너편을 바라보던 창환은 흠칠 놀랐다. 돌연 적진에서 불'빛이 번쩍했기 때문이다.

창환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홱 돌렸다. 혹시 이쪽에서도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이라도 있을상 싶었기 때문이였다. 아니나 다를가 월정 방향에서 푸른 불'빛이 몇번 번쩍거렸다.

창환이는 눈을 크게 뜨고 수상한 신호를 포착하려 했으나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잘못 본 것이나 아닌가?)하고 생각하던 그는 스스로 자기 의심을 부인해 버렸다.

(아니다. 확실히 불'빛은 번쩍거렸다.)그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적진을 노려 보았다.

저멀리 조합 벌에서 뜨락또르의 고르로운 음향이 들려 왔다. 창환이의 머리에는 오늘 논 밭에서 있었던 이상한 사건이 떠 올랐다.

오늘 조합에서는 모내기가 있었다. 그런데 논발에 운반해다 놓은 숫한 모춤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래서 모내기에서 적지 않는 지장을 받았던 것이다.

(대체 그 모춤이 어떻게 됐을가?)

창환이는 아무리 그 실마리를 풀려고 애썼으나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다시 한번 번쩍하였다. 그러자 월정 쪽에서도 불'빛이 번쩍거렸다.

(음, 틀림 없구나, 내가 잘못 본게 아니였지.)

창환이는 앞을 노려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저 수상한 신호와 오늘 논 밭에서 있었던 사건이 과연 련관이 없을가?

《…원쑤들이 발광하고 있네. 수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야. 경각성을 높이게.》

새벽 녘에 보초를 교대하면서 상세하게 인계해 주고난 창환이는 초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창환이는 집으로 돌아 오면서 줄곧 그 불'빛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조강리 고개 마루로 올라 섰을 때였다. 어두 컴컴한 숲속에서 무엇엔가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 올랐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바라보는 산'비탈 숲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얼핏 사라졌던 것이다.

창환이는 발소리를 죽이면서 조심조심 그리로 가 보았다. 그러나 나지막한 산 기슭에서는 잔솔들이 강'바람에 우스스 설레일뿐 아무것도 없었다.

창환이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이 만약 사람의 그림자였다면…) 잠들지 못하고 뒤쳐 눕기만 하던 창환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검은 그림자가 얼씬하던 산'비탈로 다시 올라가 어둠 속을 조심히 살펴 보았으나 별다른 흔적이 없었다.

어느덧 먼동이 훤이 트기 시작하였다. 창환이는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가로 나오다가 풀들이 짓밟힌 자리를 발견하였다.

그의 정신은 바짝 긴장해졌다.

풀'잎에 이슬이 떨어진 것을 보니 틀림 없이 사람이 여기 숨어 있었고 발에 짓밟힌 풀들이 누운 것으로 보아 마을쪽으로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누구이며 어데로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검은 마수

창환이가 풀섶에서 괴이한 흔적을 찾고 있을 때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컴컴한 한 집으로 수상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불도 켜지 않는 방에서 말소리가 새여 나왔다.

《아유 이제야 오슈?》잠에 취한 녀인의 목소리다.

《그래 반가운 소식이나 들었수? 도대체 그 량반들이 언제나 온다우?》

《시끄럽게 굴지 말아. 등신 같은 자들이 또 기다리래, 젠장 찔레꽃이 필때면 온다더니…》

《그놈의 찔레꽃인지 달래꽃인지야 벌써 몇번이나 피였수. 그 량반들을 믿다간 원!》

이것은 로 병학이네 집이다.

…원래 병학이란 자는 월정리에서 이름난 부자였다. 그에게는 머슴들도 여러명 있었다. 이 자는 일제 때나 리 승만 통치하에서나 항상 놈들의 충직한 개노릇을 하였다.

병학은 그 후 이 지대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자 허위 자수하고 뒤에 숨어 갖 조직된 조합을 파괴해 보려고 갖은 흉책을 다하고 있었다.

밤 이슬을 맞으며 온밤 산 기슭에 엎디여 있었건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흥, 어디 보자, 순순히 내 땅을 내줄 줄 아느냐, 이놈의 조합이 며칠이나 배기나 보자. 몽땅 녹여 내고야 말걸!»

놈은 앞으로 할 계책을 두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5 촌인 창환이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리라 마음 먹었다.

그 다음 날이였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창환은 길'가에서 병학이를 만났다.

«창환아! 그렇지 않아도 너를 만나려던 참이다. 네 아버지 제사'날이 이맘때지?»

«예»

«…밥이라도 한그릇 지여 가지고 산소에 가서 풀이라도 베드려라. 어머니 산소야 저 강 건너에 있으니 차츰 지내더라두…»

병학이의 음흉한 속심을 모르는 창환이는 그의 말이 몹시 고마웠다.

(암만 그래도 친척 간이 다르구나)

그러나 한편 창환이에게는 피뜩 몇해 전의 뼈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다.

…부모를 잃고 류랑 걸식하던 창환이가 깡통을 들고 이곳 판문군 월정리(당시 미해방 지대였다)에 있는 병학이네 집을 찾아 왔을 때 그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 내지않았던가? 지금은 조합의 품 속에서 어엿한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건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리고 철없던 창환이는 의지할 데 없는 불상한 존재였다.

그러던 5 촌이 지금은 자기 아버지 제사까지 걱정해 주다니 «아마 인제는 사람이 되는가 부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제야 너나 내나 누굴 믿고 살겠니? 피를 나눈 한 집안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부터 친척이 좋다는거란다.» 하고 병학은 말하였다.

그 후 창환이에게 베풀어 지는 병학이의 «인정»은 날로 «두터워»졌다. 그는 창환에게 신발도 사 주고 좋은 자리가 있으니 부모도 없는 처지에서 일찌감치 장가 들라고 권하기도 하였다.

허지만 창환이는 병학이가 조합 일에 성실하지 않고 쉬운 일만 찾아 다니며 건달만 부리는 것이 딱 질색이였다.

더우기 창환이는 한번 수상한 일을 목격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에 병학이네 집 앞을 지나던 창환이는 그가 자기 집 뒷 울안에서 조합 소를 비끌어 매고 큼직한 몽둥이로 장작 패듯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창환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 소는 왜 때립니까?»

«음, 이놈의 소 새끼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서… 오늘 논을 갈다 여간만 애먹지 않았다. 에—망할 놈의 소…»하고는 손에 들었던 몽둥이를 홱 집어 던지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조합 소 한마리가 밤 사이에 갑자기 죽어 버렸다.

조사해 보니 소가 모다구와 유리가루를 먹고 죽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어느 놈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분명했다.

이때 창환의 머리에 번개 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혹시 병학이가…» 그러나 다음 순간 창환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설마 그럴리야 있을라구…)

하루는 병학이가 창환이를 또 찾아 왔다.

«창환아, 그래 장가를 안들 작정이냐? 옷이랑은 걱정 말아라! 뭐니뭐니해도 제 핏줄이 제 핏줄이지. 어디 누가 도와 준단 말이냐.»

병학은 이렇게 말하면서 창환이의 얼굴을 슬쩍 넘겨다 보았다.

«넌 이제부터 내 일을 잘 도와 달라, 매우 중대한 일을 하는데 말이다.»

«무슨 일인데요?»

«그건 차츰 알게 될거다. 어떠냐 한번 해

보겠니?»

«…?»

이런 말까지 듣고 보니 창환에게는 암만해도 병학이가 수상하게만 생각되였다. 그렇다고 그 내심도 딱히 모르고 세상에 오직 친척이라군 하나 밖에 없는 그의 비위를 거슬려 놓기도 두려웠다.

창환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병학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병학이의 계급적 정체를 아직 잘 몰랐던 것이다.



갈림'길에서의 결투

화살은 하나의 과녁을 향해 날고 또 날았다. 조합에서는 최근에 발생된 이러 저러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군중 투쟁이 강력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럴수록 창환에게는 고민이 커 갔다.

…병학이가 조합 소를 마구 때리던 일, 그가 자기에게 던지던 이상한 암시, 이 모든 것을 툭털어 놓고 말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가만히 있자니 나라에 무슨 죄를 짓는 것만 같고 또 말하자니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럴때마다 언제인가 민청 위원장 동무가 하던 말이 삼삼히 떠 오르기도 하였다.

«지주나 자본가가 성심을 쓴적이 없고 그의 본성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원쑤는 교활하고 음흉하다. 잠시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라…»

원칙과 «인정»의 갈림'길,아니 계급 투쟁의 갈림'길에서 창환이는 모대였다.

한편 이때 병학은 날아 오는 화살에 몹시 당황 했다. 그는 군중의 눈초리가 자기에게로 쏠리고 있음을 감축하고 있었다.

(이제는 별 수가 없다. 판국이 틀려 먹었으니 깜쪽 같이 뺑소니칠 수 밖에 없다.)

어느날 그놈은 보초 선 창환이를 찾아 왔다.

밤도 아닌 대낮에 여기까지 나온 병학이를 보자 창환이는 깜짝 놀랐다.

그놈은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살피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그래 내가 요전에 하던 말을 생각해 봤느냐?»

«예?!»

«그럼 좋다. 저 강 건너 삼각산에는 약재로 쓰는 팽나무가 많단다. 그걸 구해오면 큰 돈이 생길터인데…»

«강 건너요?» 창환이의 눈은 휘둥글해 졌다.

«오냐, 뭐 그리 놀랄거야 있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 나갈 터인데… 그저 너만 믿고 하는 말이다.»

«……»

창환이의 등에서는 진땀이 솟았다.

《너는 여기 지형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길을 좀 대 주렴아. 안전하고 될수록 감심이 얕은 곬으로 말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창환이는 어쩔바를 몰랐다. 그는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슬쩍 말을 돌려쳤다.

《이런 대낮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래일 저녁에 길을 가르쳐 드릴터이니 10시 경에 오십시요.》

그러자 병학의 얼굴엔 희색이 만면 했다.

《호호 아무렴 그렇지…………………그럼 든든히 믿고 가겠다.》

집에 돌아 온 창환이는 깊은 사색 속에서 자기를 판결하고 있었다.

(무엇을 주저 하랴! 병학이는 원쑤다!)

그는 이렇게 모대이다가 문뜩 당반에 매달아 놓은 깡통에 시선이 갔다. 그것은 창환이가 미제와 리 승만 통치의 학정 밑에서 류랑 걸식할 때 가지고 다니던 것이였다.

그는 피눈물 나는 지난 날의 일을 더듬어 갔다.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던 배'사공인 아버지가 지주놈 등'살에 못'이겨 서울 가서 술을 싣고 오다가 배우에서 세상을 떠난 일, 널쪼각 하나 구할 길 없어 헌 가마니에 아버지 시체를 싸 안고 장례하던 일,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일시적 후퇴를 하던 인민 군대를 밥해 주었다는《죄》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한 달이나 갇히였다가 반주검이 되여 나온 어머니가 미국놈들의 폭격에 돌아 가신 일, 그래도 친척 집이라고 병학이를 찾아 왔다가 뭇매를 맞고 쫓겨 나던 일… 이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이 떠올랐다.

(그러툿 가난한 집의 자손이였던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자 나를 어엿한 조합원으로 키워 주었고 글도 배워주고 집도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5 촌은 나에게 몽둥이와 변덕스러운 《인정》 그리고 문어진 옛 제도를 꿈꾸며 나를 미끼로 삼아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설교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야할 길은…)

창 밖에서 소란하게 쏴—처절썩이는 파도 소리도 마치 눈감지 못하고 돌아간 아버지의 원한의 소리인양 가슴을 파고 든다.

이윽고 그는 벌떡 몸을 이르켰다. 그는 고추 달려가 리 당 위원회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병학이와 약속한 이튿날 밤 열시

조합 경비 초소에는 해괴 망칙한 행장을 갖춘 병학이가 나타 났다. 마치 교수대에 오른 자의 목에 바'줄이 걸려 있듯이 그의 모가지에는 바람을 팽팽히 잡아 넣은 자전거 내피와 수십개로 무은 뽈 내피가 걸려 있었다.

《자 창환아! 어서 길을 대주렴. 난 벌써 이절루 덕수 저수지에 가서 강을 헤엄쳐 건너는 련습까지 다 해 봤다.》

《…그럼 날 따라 오십시요. 이 오솔'길로 해서 저 산비탈을 돌면 됩니다.》

《그럼 넌 길목을 단단히 지켜라.》하는 말을 남기고 병학이는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바로 이 순간. 량옆에서 총창이 번쩍하였다.

《꼼짝 말라. 움직이면 쏜다.》

그놈은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질겁한 원쑤는 뒤로 내뺄 작정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거기에는 창환이의 서릿발 같은 총창이 가로 막고 있었다.

《아아—니 창환이 네 네가…?》

흉악 무쌍한 간첩은 이지러드는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창환이는 힘차게 웨쳤다.

《닥치라. 혁명의 앞길을 막는 원쑤들은 결코 용서치 않는다.》

창환이가 속된《인정》을 버리고 혁명의 갈림'길에서 끝내 자기 립장을 지켜낸 사건은 바로 이렇게 끝났던 것이다.

이것은 분계선 마을인 판문군 월정리에서 농업 협동 조합이 갓 조직되던 때에 있은 일이다.

지금 로 창환 동무는 조합의 (현재 조강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 믿음직한 일'군으로서 자기 혁명 초소에 굳건히 서 있다.

본사 기자 류 승환

량 반 전

글 박 연 암
그림 정 현 웅

량반이란 것은 사족(士族)의 칭호다. 정성군(강원도)에 한 량반이 있는데 현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도임하면 첫 인사로 반드시 그 량반의 집에 몸소 가서 방문하였다. 그러나 그 량반은 몹시 가난해서 해마다 그 고을 환자를 꿔 먹는 것이 한번도 갚지 못한 채로 쌓이고 쌓이여 천석에 까지 이르렀다.

어느 날 관찰사가 도 내 각 고을을 순행하다가 정성군에 와서 환자 장부를 검열해 보고 성내며 어떤 량반 작자가 이처럼 나라의 군량을 허비했느냐? 하고 그를 잡아 가두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군수는 그 량반의 가난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참아 잡아 가둘 수 없었다…

그러나 엄중한 포흠이며 상관의 명령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량반도 딱한 형편에 어찌할 줄 몰라서 밤낮 울고만 있었다.





그의 안해는 자기 남편에게 통을 주면서

《당신이 평생에 쓸 데 없는 글만 읽고 관가 환자에 매달려 빼치다가… 헤체! 량반! 량반은 한푼어치도 못 되는군!》하였다.

이 때 그 량반과 한 마을에 사는 한 상놈 부자가 있었다. 그 량반의 곤난한 사정의 내막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들과 은근히 상의하기를

《량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항상 존귀한데 우리는 비록 부유하나 항상 비천하여 감히 말을 타지 못하고 량반네를 보면 쩔쩔 매며 기여 가서 마루에 오르지 못하고 뜰바닥에서 절하고 코를 끄을고 무릎으로 걷게 되니 이런 치욕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제 이웃 집 그 량반이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하고 크게 곤난한 지경에 빠졌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그가 량반의 지위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니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는 돈을 주고 량반의 권리를 사서 가지는 것이 다행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상의한 다음에 부자는 그 량반에게 가서 량반 값으로 천 석이나 되는 환자를 자기가 갚겠다고 발언한 즉 죽을 곤경에 밤낮 울고만 있던 그는 펄쩍 뛰며 기뻐하여 대번에 승락하였다.

그래서 그 즉시로 부자는 그 량반의 포흠인 천 석을 관가로 갖다 바쳤다.

이때 잡아 가두지도 아니 잡아 가두지도 못하여 머리를 앓던 군수는 신기하게 여겨 곧 그 량반에게 치하하고 거액의 환자를 그처럼 조속히 갚게 된 연

유도 들어 불겸 찾아 갔더니 그는 관을 쓸 대신에 전립을 쓰고 중추막이나 도포를 입을 대신에 돌방옷을 입고 길'바닥에 엎드려 소인이라고 자칭하며 감히 치여다 보지도 못하였다…



군수는 더우기 놀래서 타고 가던 장독교(관리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에서 뛰어 내려 가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면서 《생원은 어째서 이처럼 자기를 굴욕하시오?》

한즉 그 량반은 더우기 황공한 태도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여쭈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이 감히 자신을 낮추는 례의가 아니오라 할 수 없이 이웃 부자 아모에게 량반을 팔아 환자 포흠을 갚았사오니 이웃 부자 그가 지금은 량반이옵고 소인은 상놈으로 떨어졌사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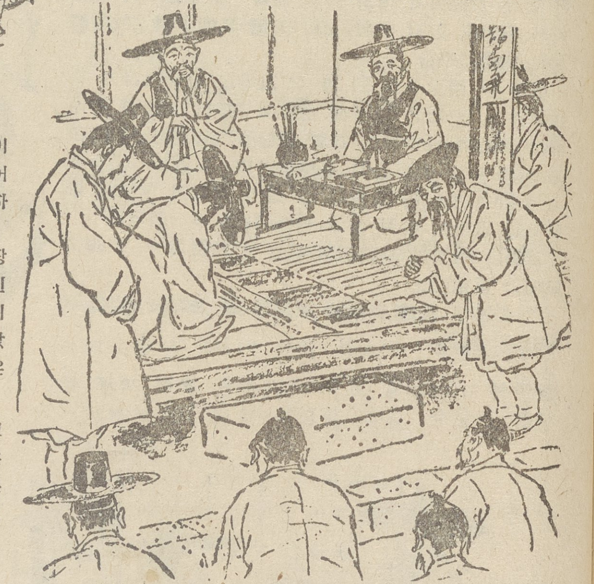
그 사연을 들은 군수는 감탄하면서 《군자답다. 그 부자! 량반답다. 그 부자! 부하고도 린색지 않은 것은 의(義)이며, 남의 곤난을 제일처럼 펴 주는 것은 인(仁)이며 낮음을 싫어하고 높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智)이니 이는 진짜 량반이다. 그러나 두 사람끼리만 사고 팔고만 하고 문서를 만들어 두지 아니하면 이 다음 날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매매 언약에 고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문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수표하여야 한다.》 하고 군수는 동헌에 돌아 가서 군 내 사족들과 농민, 쟁인바치, 장사치들을 동헌 앞뜰에 모두 불러 모아 놓고 그 부자는 향고의 오른편에 앉히고 그 량반은 공형의 아래에 세우고 량반 매매 문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건륭 10년 9월 ×일 우 명문딴은 이 몸이 량반을 팔아 환자를 갚으니 그 값이 천 석이다. 량반은 명칭이 많으니 글 읽으면 선비라 하며, 벼슬하면 대부라하며, 덕이 있으면 군자라하며, 무반은 서계에 서고 문반은 동계에 서니 이를 량반이라 하는데 이들 중에 어느 것이든지 그때 마음 대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량반 노릇하는 데는 엄격히 준수해야 할 몇가지 조목이 있다.

〈비천한 일은 아예 하지 말고, 예전 사람을 모범하며, 뜻을 고상히 해야 한다. 항상 첫 새벽에 일어



나서 류황불로 기름 등잔'불을 켜 놓고 눈은 코 끝을 내려다 보며 발굼치를 모아서 엉덩이를 고이고 동래박의를 얼음 우에 박밀듯이 외워야 한다. 주림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에 관한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를 딱딱 마주 치고 뒷통수를 손'가락으로 튀기며 기침을 사납게 말고 침을 삼켜야 한다. 갓 모자를 옷 소매로 쓸어 먼지를 털고 얼른거리는 무늬를 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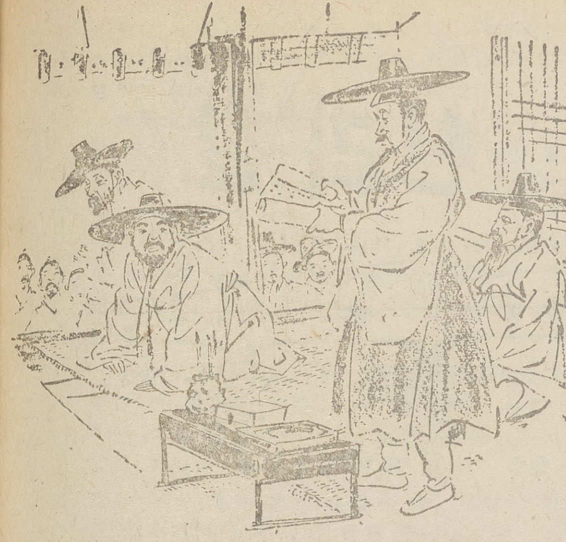
세수하는데 주먹을 너무 부비지 말며 양치를 너무 야단스레 하지 않는다.

소리를 세게 빼여 종년을 부르고 걸음은 천천히 하면서 신을 끈다.

《고문 진보》와 《당시 품위》를 한줄에 백자씩 깨알 같이 잘게 베겨 쓴다.

손에 돈을 가지지 말고 쌀 값을 묻지 않는다.

더워도 보선을 벗지 말며 상투'바람으로 밥상을 대하지 말라.



밥은 국보다 먼저 떠 먹지 말며 마실적엔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 젓가락질은 방아 찧듯이 탕탕하지 말며 생파를 먹지 말라.

술 마시고는 수염을 빨지 말며 담배 피울 적에는 량쪽 볼이 옴폭 들어 가도록 빨지 말라.

분이 나도 안해를 때리지 말며 성이 나도 그릇을 차지 말라.

종들을 뒤질놈이라고 꾸짖지 말 것이며 소를 꾸짖는데 《이놈의 짐승》 이라고 욕하지 말 것이다.

병 들어도 무당 불러 굿하지 않으며 제사에 중을 시켜 재 올리지 않는다.

화로'불에 손을 쪼이지 말며 말할 적에 침이 튀지 않게 한다.

소를 도살하지 말며 돈 내기 놀음을 말라.〉

온갖 행실이 이 국정에 어긋남이 있거던 이 문서를 가지고 본관 성주께 가서 분변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이 문서 쓰기가 끝나매 정성 군수가 수결을 하고 좌수와 별감이 증표를 한 다음에 통인은 인궤에서 군수 인장을 내여 가지고 문서에다가 호기있게 이리저리 찍으니 투당투당 북소리요, 불긋불긋 별들이라 호장은 그것을 한번 랑독하였다.

랑독이 끝나매 부자는 실망한 얼굴로 한참 말 없이 있다가

《량반은 다만 이것 뿐입니까? 제 듣기에는 량반은 신선과 같다더니 량반 노릇하기가 이처럼 거북하고도 몰취미할진댄 누가 량반 노릇을 하겠습니까? 내게 리익이 있도록 문서를 고쳐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의 비위에 맞도록 량반 매매 문서를 다음과 같이 고쳐썼다.

《하늘이 백성을 내매 사, 농, 공, 상 사민이 있다. 사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선비인데 이를 량반이라고 부르므로 그 리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아니 하고 장사도 아니하고 글'줄이나 적으며 책 권이나 읽은 다음에는 잘하면 문과(文科)하고 못 해도 진사는 할 수 있다. 문과 홍패(홍지에 쓴 문과 합격 증서)는 두 자 길이에 불과한 것이나 온갖 물건이 그 가운데에 구비되여 돈'주머니라고 한다. 설흔 살에 진사하여 첫 벼슬에 오르면 오히려 저명한 음관(정식으로 문과 무과의 시험을 거쳐서 벼슬한 것이 아니고 그 아비, 할아비의 공덕으로 벼슬에 오르는 것)이 되고 일을 잘 하면 큼직한 남행 벼슬을 할 수 있다.

귀는 일산 바람에 희여지고 배는 졸'방울의 긴 대답에 살진다. 별실에는 어여쁜 기생을 꾸몄으며 뜰 안에는 우는 학을 기른다.

궁한 선비도 자기 시골서는 마음 대로 세력을 부려서 이웃 집 소로써 제 밭을 먼저 갈게 하며 마을 상놈들을 시켜 김을 매게 하드래도 누가 감히 업수이 여기리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놈의 코'구멍에 재를 퍼 넣으며 상투를 잡아 휘두르고 귀쌈을때려 부신들 누가 감히 원망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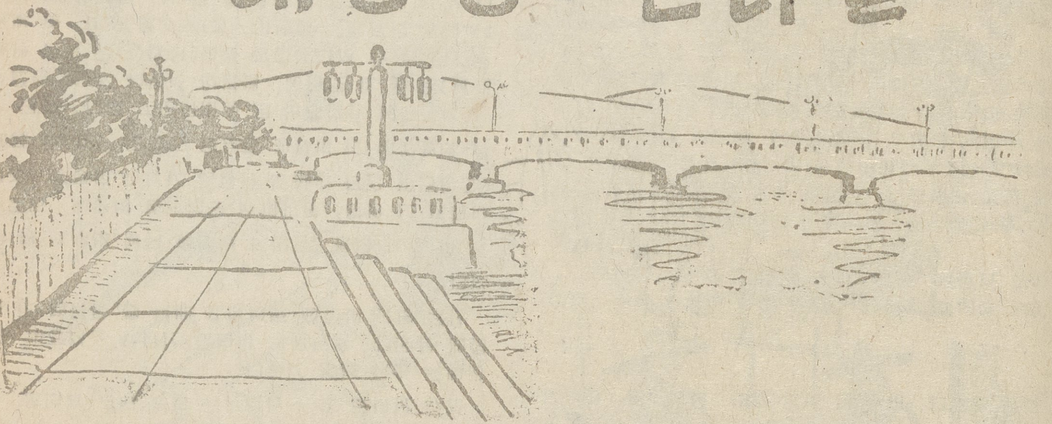
이와 같이 문서를 써 가는 도중에 부자는 혀를 빼물고

《그만 두시오! 그만 두시오! 맹랑한 일입니다. 량반 노릇 하란 것이 필경은 나를 도적놈을 만들 작정이시오.》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질하다 싶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 부자는 종신토록 다시는 량반 이야기를 입에 걸지 아니 하였다.



조국 기행

대동강 천리'길



김 동전

대동강을 따라 계속 흘러 내리는 우리의 곁에 또 하나의 넓은 벌이 펼쳐졌다. 춘보 아바이는 그 벌을 바라 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벌을 강선'벌이라 한단다. 까마득한 옛날 평양 모란봉 숲 속에 일곱 신선이 내려와 노닐군 하였단다. 그런데 그 중 어질고 착한 한 신선이 있었는데 그는 모란봉의 한 나무'군이 병에 걸려 앓아 누웠어도 가난이 심하여 약 한첩 못쓰고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어 자기의 옷 한가지를 벗어 주며 약을 쓰라하였다.

그의 덕으로 나무'군은 약을 써서 병을 고쳤으나 그 신선은 하늘에 올라가 된 욕을 먹고 지상으로 쫓겨 내려 왔다. 그 때 그 신선이 내려 앉은 땅이 바로 이 벌판이였다. 그래서 이 벌판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강선'벌이라 한단다.

그 후 그 신선은 모란봉 나무'군과 부부하여 일평생을 농사 지으며 동생동락 하였단다…》

말을 듣고 보니 강선'벌은 정말 신선이 하강할 만치 그렇게 아름다운 벌판이다. 오늘 강선'벌은 지경 없는 논'벌에 물'결치는 곡식들과 오가는 자동차며 뜨락또르, 늘어선 문화 주택들로 더욱 아름답다.

벌판 저 멀리 아침 해'살에 유난히도 빛나는 기양 뜨락또르 공장이 보인다.

호미 낫으로 농사 짓던 시대가 멀지 않은 옛날이건만 인제는 농촌 기계화의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가 뜨락또르를 처음 구경한 것도, 우리의 손으로 만든 뜨락또르의 첫 시제품을 그러안고 기뻐하던 일도 그리 먼 지난 날이 아니건만 벌써 우리 나라는 년년 수천 대의 뜨락또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처음 뜨락또르를 만들던 때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뜨락또르를 만들자니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았던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침식을 잊고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현장에서 골돌하였다. 그러나 뜻 대로 되지는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수상 동지께서는 공장을 찾아 오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을 고무하여 주시고 뜨락또르가 없이는 우리의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집체적 지혜를 모아 꼭 뜨락또르를 만들어 낼 것을 강조하시였다.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에 고무된 로동자, 기술자들은 다시 승리의 신심 드높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뜨락또르 생산에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 끝내나 자기의 손, 자기의 힘으로 이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우리의 가슴을 흔들며 우리의 첫 천리마호 뜨락또르가 경애하는 그이를 찾아 평양으로 달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가!

수상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뜨락또르가 생산되던 여기 기양은 지금 조국의 믿음직한 뜨락또르 생산 기지로 되였다.

뜨락또르를 만재한 렬차들이 떠나 간다. 실로 푼전을 아껴 가며 이 땅에 중공업을 발전시킨 우리 당 정책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은 더욱 후더워진다.

다시 우리의 배'목은 흘러 흐르는데 오른쪽 강 기슭에 창공 높이 치솟은 굴뚝들이 련줄 련줄 늘어 섰다. 여기는 대안 전기 공장이다.

들끓는 대안!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 전투를 앞둔 지난 해 12월, 수상 동지는 열흘 동안이나 이곳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현지 지도를 하시였다. 수상 동지는 공장 관리 운영 사업과 당 사업에 빈틈이 없는가하여 세심히 살펴 주시였으며 그 많은 기대들을 하나하나 돌아 보시며 나사가 풀리지나 않았는지, 기름이 마르지나 않았는지 하여 살펴도 주시고 로동자들의 합숙과 사택도 돌아 보시며 나무 걱정이 없는가, 불이 잘 드는가에 대하여까지도 일일히 보살펴 주시였다.

그리하여 대안이 걸린 문제, 아니 전국의 공업 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던 문제를 풀어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새 환경에 적응하게 기업 관리 체계와 공장 당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생산에 대한 당'적 령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는 청산리 방법의 심화 발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였다.

그 후 이 공장에서는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공장 관리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1962년 새해 전투를 마련하는 《2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공장 내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이 기간에 수령의 말씀대로 기계를 점검 보수하고 예비 부속품과 자재를 확보하고 설계를 선행시켰다. 그리하여 금년도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첫 전투에서부터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날마다 시각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여 6월 9일 현재로 상반년 계획을 완수 함으로써 새로운 공장 관리 운영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어느덧 강은 바다처럼 넓어졌다. 노을 비낀 수면 우로 숭어가 뛰여 오르군한다.

《숭어, 숭어! 아바이 숭어애요.》

영식 동무는 흥분된 어조로 소리쳤다.

《영식이! 떠들지 말게! 그러면 숭어가 안 뛰여! 숭어가 내 말을 잘 듣는거야, 인제 한번 보겠나. 내가 시키는 대로 숭어가 하는 것을…》

바로 그 때 커다란 숭어 한 마리가 높이 뛰여 올랐다.

《그놈 잘 뛰는군 어디 한번 더 뛰여 보아라!》

이렇게 춘보 아바이가 말하니 그놈의 숭어는 다시 한 번 넝큼 뛰였다.

《잘 뛰는군, 이왕 뛴 김에 한 번 더 뛰여라.》

춘보 아바이는 마치 숭어와 이야기라도 나누듯이 또 말하였다. 그러자 숭어는 춘보 아바이의 말을 알아 들은듯 또 높이 뛰였다.

《그 놈 잘 뛰는군 인젠 그만 하지.》

춘보 아바이가 이렇게 말하니 그 다음 숭어는 더 뛰지 않았다. 기특한 일이다.

그럼 춘보 아바이가 정말 숭어와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는 것일가?

《옛날 말이다…》

춘보 아바이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나라의 한 장사가 조선을 먹어 볼 심산으로 변장을 하고 배를 타고 들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저렇게 숭어란 놈이 뛰였던 모양이다. 배에 앉았던 조선 사람이 이자 나처럼 숭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장사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갔다는 것이다.

왜 돌아 갔느냐구? 아 거야 보통 사람이



물짐승까지 쥐락펴락하는 나라를 내가 감히 어떻게 다치랴 해서였지… 숭어란 놈은 한 번 뛰면 꼭 세 번을 뛰고야 말거든…》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물'고기 타령이 났으니 말이지.》하며 아바이는 대동강 물'고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동강에는 대소 66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랑림산에서 덕천까지는 주로 산천어, 잉어, 붕어, 열묵어, 꺽지, 쌔거리, 버들치, 황충이, 뚝중개, 말중개와 같은 랭수성 어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강동에서 북창에 이르는 상류 지대에는 숭어, 잉어 붕어, 누치, 모래 무치, 뱀장어, 메기, 마자, 열매기, 소가리, 꺽지, 행배리, 어레, 갈겨니, 소조리, 농갱이들이 많다. 대동강 하류의 지류들에는 유독 우리 나라에만 있는 가물치, 버들 붕어들이 있다.

저 멀리에 까마득한 굴뚝이 바라보였다.

《저것이 유명한 600 자 굴뚝이란다.》

춘보 아바이의 설명이였다. 남포 제련소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금, 아연, 동 등 귀금속의 믿음직한 가공 기지인 것이다. 창공 높이 솟아 회색 연기를 토하는 아찔한 굴뚝은 마치도 금 많은 우리 나라를 자랑하는듯 싶다.

모래를 가득가득 실은 동력 범선들이 줄을 지어 남포 유리 공장으로 달려 오고 있다.

《저것은 몽금포에서 실어 오는 금모래이다. 아무리 퍼 날라도 조수만 한 번 들어 왔다가 나가면 또 모래산이 이루어 진다거든, 그러니 우리 나라에는 유리 원료도 무진장하단 말이다.》

춘보 아바이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어 각종 판유리와 화학 유리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남포 유리 공장을 바라보는 것이였다.

…서해의 중요한 어항이며 려항인 남포, 남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다. 화려하게 건설된 거리, 남포의 부두도 아름답지만 강상에 뜬 형형색색의 배들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멀리 육중한 그러나 아름다운 배들이 수 없이 보인다.



《저게 무슨 배들입니까?》

영식동무가 물었다.

춘보 아바이나 나는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 있는 포경을 보면 영낙 없이 포경선인데 또 배의 본체를 보면 저예망선이 분명하다. 조타실 우에 또 하나의 무개 조타실이 있는가 하면 앞 머리에는 수백 톤을 저장할 랭동창도 있다. 어느덧 배 한 척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춘보 아바이가 이렇게 배에다가 대고 소리쳐 물었을 때 나이 듬직한 선장이 나서며

《이 배는 만능선입니다.》

하는 것이였다.

《아니 만능선이라니요?》

《이 배는 포경선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단독 저예망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능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만능선은 완전 기계화입니다. 저예망 권삭기 등 각종 권삭기가 다 기계화되고 축심 기구, 어군 탐지기 등 각종 탐지기들도 현대적인 것으로 되여 있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대형선들이 나흘에 한 척씩 서해로 진수합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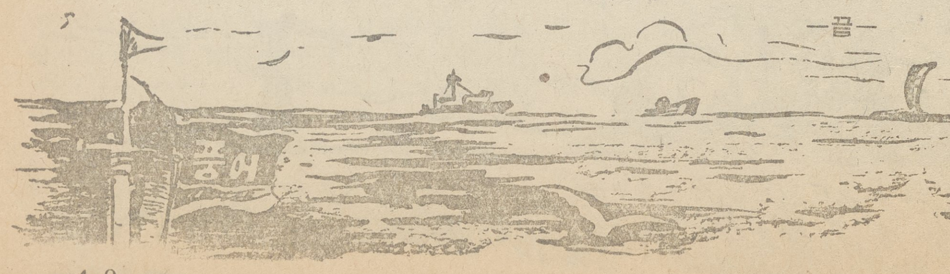
수 없이 들어 오는 배마다 풍어기가 날리고 노래 소리가 넘친다.

80만 톤 수산물 고지로 돌진하는 서해의 어장은 들끓고 있다.

아름다운 항구 기슭으로 우리의 떼는 머리를 돌린다. 여기서 우리는 대동강의 정든 흐름과 리별한다. 혁신의 기슭을 스쳐 온 흐름, 영웅의 땅에 태여나 영웅의 땅을 흘러 온 대동강은 이 나라 인민의 영웅적인 기백처럼 흘러 흐르고 있다.

이 나라 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안고, 노래를 싣고 흐르는 인민의 강, 력사의 강이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나라 인민의 천리마의 기상을 안고 천 년을 하루 같이 용용히 흐르라! 흘러라! 대동강이여!

—끝—



의병장 류 린석

리 철화

아름다운 이 강산에 꽃필 시절 다가 온다.
망망한 대해 우에 붉은 해 솟아 오르리.
사선을 넘을 수록 마음을 가다듬어
국운 회복 기어코 이루어 보세.

이는 의병장 류 린석이 전투 행정에서 《여러 벗들을 격려하여》라는 표제로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시'적 형상 속에는 억센 설한풍을 이겨 내고 백화만발한 조국의 미래가 격조 높이 노래 되고 있으며 어두운 장막을 뚫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붉은 태양에 의하여 밝아 오는 조선의 아침이 한 폭의 화폭으로 안겨 오고 있다.

아무리 간고한 전투 속에서도 생활의 랑만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희망과 신심이 고동치고 있다.

하여 그는 반일 의병 투쟁 전 기간을 걸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원쑤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 수 있었다.

반일 의병 투쟁 시기의 의병장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류 린석을 떼여 놓고 말할 수 없다.

어찌 그 뿐이랴! 이러한 애국주의 사상을 토양으로 하고 창작된 수다한 시편들과 격문, 창의문들은 작가로서 그의 면모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 문학사를 찬연히 빛내고 있다.

류 린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류 중곤의 아들로 태여 났다.

그는 벼슬을 하지 못한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 났으나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고 학습에 부지런하였으며 성격은 매우 침착하고 대담하였다.

이것은 그의 소년 시절에 있은 일이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 뒤'산에 강도가 있다는 소문으로 하여 어른들도 감히 그 산을 들어 가기 꺼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 아이들이 모여 그 산에 누가 갔다 올 수 있는가를 내기하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갔다 오겠다고 용감히 나서는 아이가 없었다.

이 때 류 린석이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자청하고 산으로 들어 갔다.

그는 한 꾀를 생각하여 산 입구에서부터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면서 혼자 떠들석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 도적이 있다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오는 줄로 짐작

하여 달아나도록 하려고 함이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무사히 그 산을 다녀 왔다. 모든 아이들은 그의 대담한 행동에 못내 감탄하였다.

그는 또한 청년 시기부터 인민들의 빈궁한 생활을 동정할 줄 아는 고상한 인도주의자였다.

서울 거리를 드나들 때 그는 반드시 돈을 마련해 넣어 가지고 가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군 하였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끔 이불속에서 혼자 울기를 잘 했다. 그의 형이 《왜 우느냐?》고 물으면 《나라 안에 주리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음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 시기부터 이미 이렇게 용감하고 인도주의적 감정이 풍부한 그는 점차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자기 조국을 침범하려는 외래 침략자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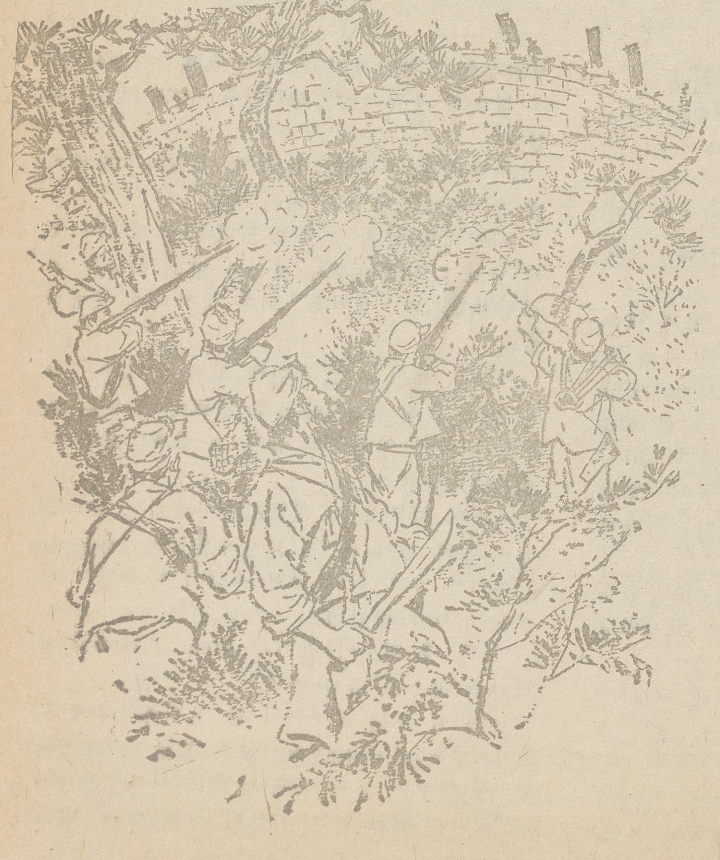
이 시기 우리 나라 정세로 말하면 대내적으로는 리조 봉건 정치가 극도의 부패와 혼란을 가져 오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침략자들이 강도적인 침략 행위를 시작하였다.

1866년 9월에 불란서 침략자들이 강화도를 침범하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는 당시 24 세의 청년으로서 봉건 정부가 외적과 싸우지도 않고 타협하려는 비겁한 태도에 대하여 격분된 심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선생 리 항로와 함께 서울에 달려 가서 강화성을 고수하고 백번 죽는 한이 있어도 원쑤와 싸우자고 봉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드디여 강화성을 고수하기로 작정되여 리 항로의 제자 량 헌수 (—강화도 전투에서 용감히 싸운 애국적 명장, 그의 기념비가 강화도에 있다.)가 당시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원적으로 떨쳐나선 의병들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출전하여 외적을 물리치고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멸적의 기세 드높이 전선으로 떠나던 날 류 린석은 《강화도 양요》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싸움 없이 몇 해를 살아 오면서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아 왔더라.

오랑캐 검은 연기 바다를 뒤덮으니
강화도 초소에서 천화 소식 급하구나.

온 서울 들끓어 정부도 당황하는데
조국이 고귀할사 의용병은 떨쳐 왔다.

원쑤들을 격멸하자. 우리 선생 바른 주장
왜적들과 타협하려는 자를 통쾌하게 부셨다.

장하여라. 량 장군 출전하는 그 기세
하늘인들 무심하랴. 정녕코 위훈 세우리.

이 시에서 우리는 그의 애국주의 사상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느낄 수 있으며 백절불굴의 투지를 력력히 볼 수 있다.

그가 34 세 되던 해인 1876년 2월에 일본 침략자들이 조작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여 싸운 사실은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 침략자들이 강도적인 《운양호 사건》을 구실로 우리 나라를 장차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첫 조약이다.

이 때를 당하여 류 린석은

《문호를 그냥 개방하고 외적을 맞이해 드리면 화가 장차 예측하기 어려울것이니 조약을 맺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봉건 정부에 건의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씨 일파를 비롯한 무능력한 통치배들은 일제 앞에 굴종하면서 불평등적이고 침략적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 하고야 말았다.

정의감과 투쟁 의욕에 불타는 류 린석은 이러한 사태를 당할 때마다 손에 무기를 잡고 원쑤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군 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에 그는 강원도 녕월 땅에서 의병 부대를 조직하고 투쟁의 불'길을 높이 추켜 들었다. 류 린석은 충청도 제천으로 진격하면서 《 8 도 각 고을 인민들에게 고한다. 》는 격문을 발표하여 인민들을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류 린석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들은 1896년 1월에 충주성을 공격하여 10 여 일 동안이나 이 성을 점령하였다.

이 때 충주 관찰사 김 규식을 비롯한 매국 관료들을 인민의 반역자로 처단하니 일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포에 쌓여 감히 마음 대로 행동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자기 제자 리 강년, 서 상렬 등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일본 침략 군대들의 병영을 공격하여 수백 명의 원쑤들을 살상하였다.

그는 1908년 7월에 의병 투쟁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목적 밑에 로시야 원동 지방으로 건너가서 13 도 의병 도 총재라는 이름을 띄고 홍 범도 부대와 련계를 가지면서 《의병 규칙》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 《의병 규칙》은 지금 그의 문집 《의암집》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바 이것은 반일 의병 투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재료로 되고 있다.

그가 전투를 진행하면서 인민들을 구국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킨 격문들과 창의문들은 그 주제가 명백하고 호소성과 비판성이 강함으로 하여 총창과 함께 원쑤들의 가슴에 불 벼락을 퍼붓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1910년 류 린석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조선이 《합병》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쥐여 뜯으며 《원통한 마음 못이겨》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1)

아아 원통해라 통분해라.
천지는 무너지고 일월이 빛을 잃어
력사에 보기 드문 이 추악한 원쑤여
나라를 팔다니 그 무슨 소리냐.

(2)

《합병》이란 바로 망국이거니
나라 망하면 백성인들 부지할소냐,
나라와 백성들 모두 망하면 문화인들 보존하랴
원통하고 통분해 참기 어려운 이 시각이여.

(3)

이천만 동포들이 비운에 잠겼구나
하늘이 어질다면 그 어이 참말이냐,
동포들아 눈물 지으며 부탁하노니
일만 번 죽드라도 애국 정신 떨쳐다오.

(4)

아아 슬기로운 이 나라 아들들이여
나라를 찾지 않고 얼굴 어이 들것이냐,
울고 울어 평생을 울었대도
그저는 새 봄이 돌아 못 오리.

이와 같이 나라와 인민을 절절히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하는 류 린석은 의병 투쟁을 그만 두라는 국왕의 지시도, 일제의 어떠한 회유 공작도 단호히 거부하고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원쑤들의 간교한 술책을 폭로하며 인민들을 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한 그의 시 《의병의 기'발을 들자》, 《의병들에게》, 《매국노를 저주한다 》, 《5 적과 7 적을 꾸짖는다 》, 《이등박문을 론죄 한다》, 《국내 인민들에게》 등은 사상 예술적 심도에 있어서 훌륭한 성과작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류 린석은 일생을 나라의 독립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다가 1915년 1월 29일에 동북 관전현에서 74 세를 일기로 외로운 자기 생애를 끝마치였다.

집단속에서



《정말 지난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룡천군 장산 농업 협동 조합 제 10 민청 단체의 장 성만 동무는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가 조합에서 일하게 된 것은 초중을 졸업한 후 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농촌 생활에 안착되지 못하였습니다. 어쩐지 농촌일은 힘들기만하고 발전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였거던요. 그래서 조합 일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민청 생활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무들과 집단의 따뜻한 사랑과 방조밑에서 정말 사람이되였습니다.》

…성만 동무가 한창 생활에 들떠서 돌아 다닐 때의 일이다.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밤마다 성만이네 집을 찾아 오는 동무가 있었다. 그는 성만이와 친한 성엽이였다. 성엽이는 자기의 친한 동무 성만이를 교양하기로 결심하고 성만의 집에 매일같이 찾아다녔다.

《정성이 지극하면 강산도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달포나 빠짐 없이 찾아다닌 보람이 있어 성만이는 마지 못해 일을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열성을 제대로 내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민청 위원장 동무가 찾아 왔다.

《성만 동무! 일 재미가 어떻소?》

《그저 그렇습니다.》

성만이는 심드렁하게 대답하였다. 한참 후 민청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만 동무! 이번에 어려운 일을 한가지 해주어야 되겠소.》

《……》

《성만 동문 학교 때부터 체육을 잘했다지. 지금 우리 민청 단체 체육 사업은 말이 아니요. 한번 이것을 추켜 세울 수 없겠소? 어디 한번 해 보오.》

그러더니 다음날 축구 뽈까지 척 사들고 와서 안겨 주는 것이였다. 성만이는 마음 한구석에 기쁜 생각이 들었다. (야! 나에게도 무거운 과업이 차려졌구나!)

성만 동무는 자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지를 느껴보았다. 체육 사업에 발을 붙인 후부터는 어느 정도 생활도 재미나고 동무들과도 휩쓸리게 되였다. 이제는 오히려 집 구석에 배겨 속을 썩이는 일이 웃읍게까지 느껴졌다.

특히 민청 단체가 조직한 이야기 모임은 감명 깊었다. 그날 저녁 이 모임에서는 마을의 한 로인이 이야기를 하였다.

《거 자네들은 오늘 같이 행복한 세월에 살고 있네만 그렇다고 옛'일들을 제발 잊지 말랑이. 저기 앉은 성만이나 성엽이 아버지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아 왔는지 아나?》

그러면서 로인은 옛날 이 아근에 열 세명의 큰 지주 놈들이 살았는데 그중 장 지주는 어찌나 큰 집을 쓰고 살았는지 집 테두리가 5리도 넘어서 5리'골 집이라 했다는 이야기, 성만이 아버지는 장 지주란 놈의 머슴으로 살았는데 어느 비오는 밤, 지주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매를 맞고 종신병이 된 이야기들을 세세히 하였다. 물론 성만이도 그일로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잘 알고 있긴 했지만 이날 저녁에 들은 로인의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더욱 울렸다.

밤에 성만이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문창호지에 울리는 가벼운 바람소리도 자기를 꾸짖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고 어머니 보기도 죄송스럽게만 생각되였다.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흐르는 나날이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한 량심의 가책이 들지 않는 날이란 없을 지경이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민청 위원장이 또 찾아 왔다. 이날 민청 위원장은 자기의 품속에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책을 내 놓으며 그 중 《그이는 우리를 당의 아들로 이렇게 키워 주셨다》를 읽고 그 내용을 자기의 생활과 결부시켜 발표하라는 것이였다.

《나같은게 그런걸 할 수 있나요.》

성만이는 자기도 이런 큰 과업을 맡은게 내심 기쁘긴 했으나 아직도 대중 앞에서 출연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도 되였던 것이다.

《글쎄 건 념려마오. 우리가 도와 주지 않으리…》

민청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었다.

과연 이튿날 작업 때 성엽 동무가 자기에게 오더니 분공 받은 것이 어찌 되였느냐고 묻는 것이였다. 그는 성만이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우선 그 내용을 정독하라고 하였다.

그날밤 성만이는 성엽이가 시키는 대로 그 책 내용을 몇번이고 정독하였다.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강도 일제를 쳐부시는 다망하신 나날에도 친히 중대 당 회의에 참가하시여 실정을 료해하시고 자진하여 분공 받으신 벽보를 밤을 밝히시며 작성하셨다는 김 일성 원수에 대한 감격적인 이야기, 그것을 읽으면 읽을 수록 성만이는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 오름을 어찌는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민청 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왜 한때는 집단과 동지들을 그렇게 애먹게 했던가? 또한 나는 지난날 조직이 준 임무를 어떻게 실행했던가?)

생각할 수록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튿날 성엽 동무가 다시 찾아 왔다. 둘이는 서로 토론해가면서 회상기 내용을 발표할 체계를 세웠다. 발표할 준비를 다 끝마쳤을때에는 이미 밤도 자정이 넘는 때였었다.

《몹시 곤하지?》

성엽이는 말했다.

그러나 성만이는 목이 메여 대답을 못했다. 그는 밤을 밝혀 가며 자기를 도와준 성엽이를 볼때 우정의 귀중함이 이때처럼 뼈'속까지 느껴진 때는 없었던 것이다.

성만이가 회상기를 발표하는 날이 되였다. 그는 동무들이 삥 둘러 앉은 밭'머리에 나섰다. 처음에 조금씩 떨리던 그의 목소리는 차츰 흥분해지기 시작하였다.

《동무들! 난 정말 민청원 답게 일하렵니다. 난 회상기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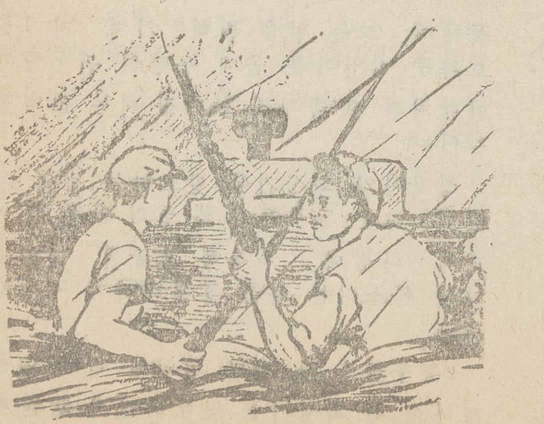
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하여 일을 잘 하겠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지적 방조와 교양의 힘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 근 1 년간이나 비'바람을 무릅쓰고 성만이네 집으로 찾아다니던 성엽이, 성만이의 이러저러한 긍정면을 살려 가면서 설복도 하고 분공도 주면서 애쓰던 민청 위원장, 동지의 괴로움도 기쁨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던 숫한 동무들! 이순간 그들의 가슴인들 오죽 기쁘랴! 모두가 한꺼번에 달려가 성만이를 와락 껴안아 주고 싶었다.

다음날부터 성만이의 태도는 차츰 달라지기 시작 했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면 어느녓 성만이는 늘 앞장서 나가군 하였다.

사람이란 생활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몇갑절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성만이의 경우도 바로 그러하였다.

한번은 큰물이 져서 고신계장의 수문이 터지게 되였다. 만일 제때에 이 수문을 틀어 막지 못하면 180 여 정보의 무연한 조합'벌도, 그에 잇닿아 있는 수백 정보의 염주'벌도 큰 피해를 입는 판이다. 사태는 몹시 위급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도 성만 동무는

《제가 저 홍수 속에 들어가서 수문을 틀어 막아 보겠습니다.》

하고 옷을 벗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아우성을 쳤으나 벌써 그를'말릴 수는 없었다. 그는 벌써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일에서는 물불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였던 것이다.

그는 바오리로 크게 묶은 짚단을 타고 사품치는 홍수 속에 뛰여 들었다. 세찬 물'살이 그를 장판벽에 떠밀쳤다. 그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사치에서 피가 터졌다. 그러나 그는 두번 세번 터져 나간 수문을 향하여 육박하였다. 성엽이서껀 다른 동무들도 그와 힘을 합쳤다. 그들은 끝내나 그 짚단을 터진 수문짝에 밀어 넣고야 말았다.

고신게 강'뚝 우에 환성이 터져 올랐다. 민청원들은 성만이를 공중 높이 추켜 올렸다. 그러나 성만이는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왜들 이모양이야! 그저 제할 일을 했는데…제길 이러지들 말라구…》

성만이의 이런 짜증은 오히려 동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것은 그 짜증내는 말 속에조차 새롭게 변모한 성만이의 심정이 그대로 력연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였다.

× ×

성만이는 지금 민청 분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말끝을 맺았다.

《…바로 이렇게 나의 발전은 집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동무들과 집단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나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본사 기자 차 청순

자강도에 있는 박 생 동무는 편집부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결혼 년령에 대한 문제가 론의 되군 합니다. 이 론의는 흔히 론쟁을 일으키나 이렇다 할 결론은 못짓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기에 대한 편집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편집부는 아래에 《결혼기 청년들이 생각할 바 문제》를 게재 한다.

결혼기 청년들이 생각할 바 문제

청년 남녀들이 일정한 년령에 도달하면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혼—이것은 남녀 청년들이 누구나가 다 자기의 일생에서 체험하는 문제이다. 결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써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국가 사회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문제로 된다. 따라서 결혼 문제를 경솔하게 대할 수는 없다.

동무가 제기한 문제는 바로 결혼기 청년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또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결혼하는데는 몇 살이 가장 좋은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딱히 《몇 살이요》 하고 대답하기는 좀 곤난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너무 일찍 결혼하지 마시오》 하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령은 결혼 성립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본인들의 자원적인 합의의 원칙과 함께 남자는 18 세, 녀자는 17 세에 도달하여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우선 봉건 유습의 하나인 조혼을 없이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결혼하는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의 건강과 교양, 따라서 공고한 가정과 민족의 륭성에 대한 국가의 깊은 배려가 표시되여 있다.

그런데 이 결혼 년령에 대한 규정은 결혼할 수 있는 최저 년령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일찌기 결혼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리유는 어데 있는가? 우선 조혼은 청년들의 로동과 학습과 건강에 일정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일생에서 청년 시절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건강하고 생기 발랄하며 태산도 떠 옮기고 바다도 가를만한 용맹스러운 힘과 왕성한 혈기로 들끓는 청년 시절에 우리들은 자기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시절에 더 많이 학습하고 기술을 소유하고 성실한 로력에 자기의 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런 청년 시기에 너무 일찍 결혼 한다면 어쨌던 본인의 학

습과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공장 합숙에서 결혼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한 선반공의 이야기는 아주 교훈적이였다.

《나는 열 아홉 살에 결혼하였다. 나에게는 꿈이 많았다. 3년 내로 고등 기술 학교를 통신으로 졸업하고 그 후 3년 후에는 기사가 될 것을 계획하였었다. 그러나 결혼하여 5~6년이 지났는데 나는 겨우 기수 자격을 받았을 뿐이다. 물론 나의 기질이 약한데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서넛이 달리고 보니 학습과 사업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았다.》

이 젊은 기수의 이야기는 짤막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다음으로 경솔하고 조급하게 결혼하면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와 화목하고 공고한 가정을 꾸리는데서도 일정한 지장을 준다.

일반적으로 청년 시절은 사회 생활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며 모든 문제를 자립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적은 시기이고 흥분과 조급성이 앞서서 문제를 단순하고 일면적으로 취급하는 때가 많다. 일생을 같이 지내며 화목하고 단합된 가정을 이룩해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일정하게 성숙된 사고력, 자립적인 판단력을 요구된다.

너무 일찍 서둘러 결혼하면 실패와 불행을 가져 오는 예가 드물지 않다.

일부 청년들은《좋은 일은 서둘러야 한다.》고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깊은 료해도 없이 인차 결혼해 버리는 경솔한 일도 있다.

청년들은 일정하게 성숙된 사고력과 자립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 다음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독립적인 가정 생활을 능히 해 나가며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자녀 교양에 대한 공민적, 도덕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하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조혼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의 학습과 사업, 건강과 발전에,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도 해로운 점이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기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바 문제는 결혼 문제가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무엇이 선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성실히 로동하며 학습하고 부단히 발전하는 것이다.

남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이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를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오늘 청년들은 위대한 혁명의 시대, 투쟁과 창조로 들끓는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자기 력사상 전례 없는 위대한 혁명적 변혁과 앙양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 선배들이 높이 추켜 들었던 혁명의 붉은 기'발을 넘겨 받아 그것을 공산주의 령마루에 휘날려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하여 우리의 위대한 혁명 임무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제일 귀중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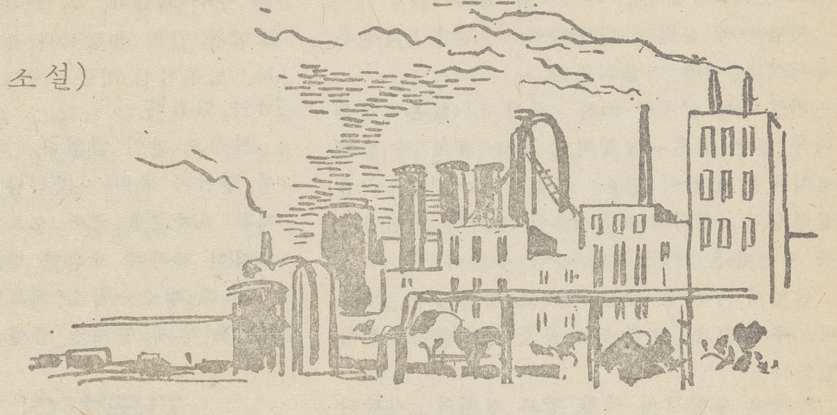
사회주의 건설의 장엄하고 긴장된 투쟁 시기에 사랑, 결혼 문제를 생활의 첫 자리에 내 놓고 여기에 지나친 정력을 허비하므로써 로동과 학습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 시대의 청년답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최고 리상이며 가장 절실한 과업이다.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기만하면 언제든지 훌륭한 애인을 맞이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쇠 없는 공장》

(과학 환상 소설)



김 동 섭

전호까지의 경개

×× 기계 공장의 작업 반장인 현이와 숙이는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 대학생들이다.

그들은 철을 대신하여 합성 재료로써 기계를 만들어 낼 것을 생각 한다.

어느날 늦은 밤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현이와 숙이는 이상한 자동차를 발견한다.

날씬하고 령롱한 색갈을 한 자동차는 그들의 곁을 번개같이 스쳐 지났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은 도랑에 다달으자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네귀를 닁큼 들어서 도랑을 건너지 않는가!

현이와 숙이는 이 자동차가 반드시 합성 재료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확신 한다.

(자동차를 합성 재료로써 만들 수 있다면 기계를 왜 못 만들어 내겠는가? 어서 그 선구자들을 만나자!)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그 이상한 자동차의 주인들을 만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만나지 못한다.

과연 현이와 숙이는 그 이상한 자동차의 주인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합성 재료로써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들의 꿈은 과연 실현 될 것인가?

세 번째 실험

자정을 알리는 고동 소리가 울렸다. 실험실 안은 퍽 긴장되여 있었다. 이제 곧 <접착제—3호>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이와 그의 반 동무들은 오래'동안 그 신기한 자동차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여 왔다. 그 이상한 자동차가 합성 재료로 만들어 졌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록 더욱 신나는 일이였다. 만일 기계들의 많은 부문을 합성 재료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멋 있는 일이겠는가! 많은 철도 절약될 수 있고…

날이 갈 수록 더욱 나래 돋히는 꿈을 가슴에 붙안고 청년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열렬히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아마도 그 자동차의 주인공들은 스프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우리끼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자고 굳게 결심하였다. 집체적인 토의 끝에

철근으로 부속품을 만들고 콩크리트를 하듯이 합성 재료를 붙이면 요구되는 탄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대담하게 실험에 착수하여 석달! 그들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거듭되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젊은이들은 더욱 깊은 리론—실험적인 연구 끝에 세 번째 점착제를 만들어 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실험중인 《점착제— 3 호》인 것이다. 웬일인지 이번만은 꼭 성공할 것만 같았다.

실험대 우에는 합성 재료로 만들어진 치차며, 추이며 관 같은 부속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이윽고 점착제에 대한 강도 실험이 시작되였다. 여러 쌍의 긴장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계기의 하얀 바늘 끝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1,500, 1,600… 숨을 죽이고 젊은이들은 눈'금을 드려다 보고만 있었다. 그들의 이마와 코'등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솟아났다. 갑자기 계기의 바늘 끝이 그 자리에서 바르르 떨리였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였다.

《아아—》 누구의 입에선지 이런 웨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에 덜커덩하고 재료가 파괴되는 소리에 그들은 정신이 들었다.

《됐구나! 됐어.》 곱슬머리 청년은 깡충 뛰면서 현이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점착제— 3 호>는 합성 재료를 철근에 꼭 붙여서 부속품에 요구되는만큼 탄성을 보장한 것이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이 번에야—》

젊은이들은 희색이 만면했다.

《자— 진동 실험까지 완성합시다.》

현이는 계속 다음 실험 준비를 서두루며 말하였다.

잠시 후에 진동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였다. 여기에만 견디여 낸다면 첫 성공은 이룩되는 셈이다.

진동기는 단조로운 소음을 내면서 뒤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창문이 바르르 떨리였다. 젊은이들은 점점 올라 가는 진동계의 바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별안간 귀를 째는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증폭기에서 울려 나왔다.

《웬일일가?!》 그들은 가슴이 서늘해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와그작 푹석》 하는 소리와 함께 실험편은 산산쪼각이 나고 말았다. 멈추어진 진동기에는 앙상하게 철근만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들은 콩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유리 그릇마냥 깨여져 흩어진 합성 재료 쪼각들을 주어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물끄럼히 바라다 보고만 있었다.

《그래<철근—합성 재료>는 꿈이란 말인가.》 현이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자동차의 주인들

벌써 동녘 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왔다. 공기는 퍽 맑고 신선하였다.

실험에서 실패한 현이는 숙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고개 마루터에 올라 선 현이는 눈을 들어 별'빛 아래 어렴풋한 건너편 산'기슭을 바라보았다. 생각할 수록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 합성 재료의 세계도, 이상한 그 자동차의 비밀도 모두가 신비로운 꿈속에 잠겨 버리고 말 것인가!

그 순간 저쪽 검실검실한 산'기슭에서 반디'불처럼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 있었다.

《음?!》 현이는 본능적으로 웨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쪽을 살폈다.

옆에서 서 있던 숙이도 의문스레 물었다.

《뭐예요? …》

《저기 불이》

《어디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가만 있소》 현이는 건너 편 산'기슭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저기!》 숙이가 쇄된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 현이도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동산 구비를 에돌아 보석 덩어리 같은 령롱한 자동차가 쏜살 같이 이리로 달려 오고 있었다.

이상한 그 자동차는 그 전에 두 사람이 만난 그 때와 똑 같은 경로를 밟아서 고개로 달아 올라 왔다. 500 메터, 400 메터…

현이는 비호 같이 달려 나가 큰 길 고개'마루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뚝 막아섰다.

령롱한 무지개 덩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한 속도로 계속 달려 왔다. 50 메터, 30 메터!

자동차는 바로 눈 앞에 다가 왔다. 보석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모형과도 같은 그 자동차의 형태가 눈에 가득 안겨 왔다.

눈 깜짝할 새 우아하고 령롱하고 날씬한 자동차가 바로 눈 앞에 가볍게 멎었다. 옆에 스르릉 구멍이 생기더니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의심스런 눈초리로 현이를 훑어 보며 이렇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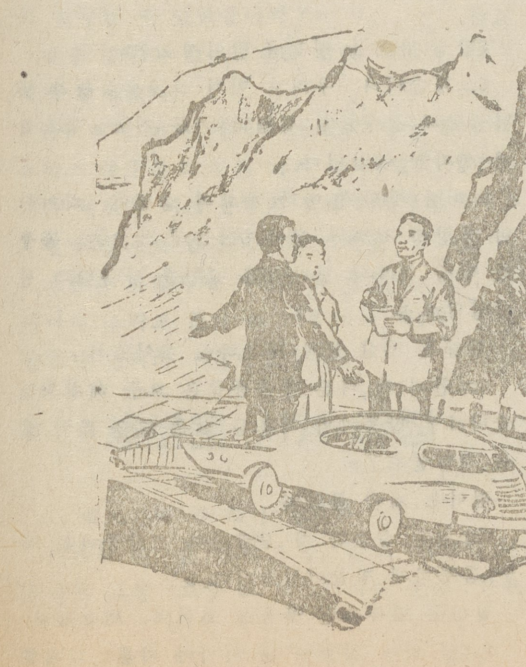
《동무는 대체 누구시요?》

《우리는 당신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현이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웨치면서 그 청년의 손을 덥석 쥐였다. 숙이도 얼른 그 쪽으로 달려 갔다.

련달아 안에 있던 세 사람이 내렸다. 현이는 투명한 차체를 어린 아이처럼 두 손으로 어루만져 보면서

《그렇지 그래!》 하고 기뻐하는 것이였다.



그는 자동차의 이 구석, 저 구석들을 신기한듯이 들여다 보고 있었다. 과연 그 자동차는 몽땅 합성 재료로 되여 있는 것 같았다.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빛갈의 부속품들로 이루어진 발동기와 전동 장치들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정말 이것은 자동차라기보다도 하나의 예술품이였다.

얼마 후 현이는 승객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것은 모두가 합성 재료로 되여 있지요?》

현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 네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결함은 스프링의 탄성이 약한 것이지요?》

하고 현이는 물었다. 그러자 네 사람의 얼굴에는 경탄의 빛이 떠 올랐다.

《아니 동무는 어떻게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물었다.

현이는 자기들이 이 자동차를 처음 보았을 때로부터 그 후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표정은 감탄과 기쁨의 빛이 어려 있었다. 현이가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였을 때 네 사람은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현이는 실패한 실험인지라 부끄러워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피했으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캐여 묻기 시작하였다.

《철근을요?》

《점착제의 성분은 어떻게 취했습니까?》

《합성 재료는 어떤 종류로 해 보았습니까?》

《음, 철근을 넣는다! …》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시 생각하고 있던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동무들을 돌아 보며

《동무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소. 이 동무들이 생각한 것처럼 합성 유리에다가 베끄라이트를

붙이면 어떻겠소?!》

《그것 참 그럴듯한 생각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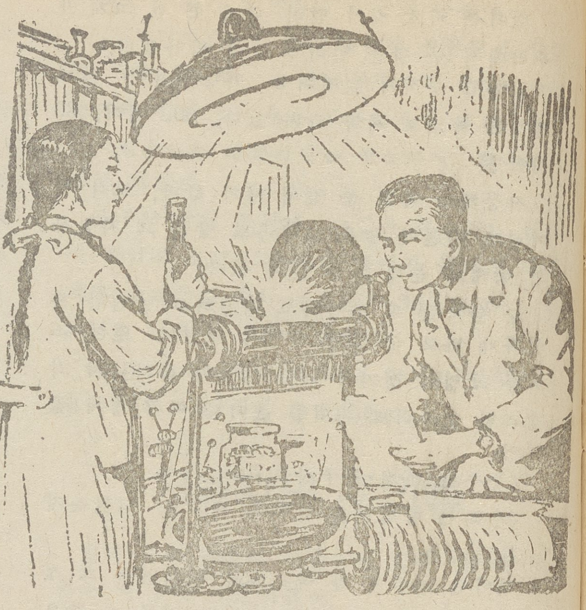
세 사람은 즉석에서 손'벽을 치면서 찬성하더니 너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곧 실험을 해 봅시다.》 그 중 제일 어려 보이는 한 청년은 벌써 차안에 들어 서면서 덤비였다.

《동무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무들의 창안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설흔 대여섯이나 되여 보이는 그 사람은 현이의 손을 꾹 붙잡고 치하를 하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그제사 생각난듯이 자기들의 동행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이였다.

《옳지. 너무 좋아서 그만 서로 인사가 늦어졌군, 저 우리는 건설 기계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무들은 우리 기사, 기수 동무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바람에 그들은 새삼스럽게 악수를 나누었다



합성 재료 로써

《실장 동무! 정말 그것은 멋 있는 착안입니다.》

《이 두 동무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소.》

정다운 눈'길로 현이와 숙이를 바라 보면서 그들은 한결 같이 말하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합성 재료로써 자동차를 만들고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우리 집단의 청년들의 집체적 지혜와 노력으로 첫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이 자동차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실험을 계속하면서 결함을 퇴치하던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한 가지가 바로 동무가 정확히 관찰한 바와 같이 스프링 문제입니다. 우리는 강철 박판에다 합성 재료를 씌워서 스프링으로 리용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만들기도 힘 들고 무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고심했지만 바로 동무들이 착안한 것처럼 강한 재료를 그 속에 넣어서 만들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동무들의 실험 결과 대로 철근은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철 대신 합성 유리를 넣으면 아주 훌륭해지지 않겠는가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장이라는 그분은 차근차근 이야기하여 주었다.

《합성 유리를 넣는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쳐 그것을 생각 못했었는데 동무들의 실험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에 따라 재료의 성질이 각이한 비 등방성 재료가 얻어지겠는데 그것은 훌륭히 합성 재료의 일반적인 결함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장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저 다른 부속품들은 모두 해결되였습니까? 발동기의 피스톤 같은 열을 많이 받는 재료들도?》

현이는 계속 물었다.

《그것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발동기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장은 만족스런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뿐 아니라 다른 기계들도 합성 재료들로써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번엔 숙이가 물었다.

《그렇지요. 그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만 완전히 성공한다면…》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들을 합성 재료로 만들자는 것이 소원입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어 몹시 피곤할 것이였지만 이렇게 말하는 현이의 두 눈은 새'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기계 뿐이 아니지요. 수십 층의 고층 건물도 모두가 무거운 철근 콩크리트가 아니라 가볍고 아름다운 합성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광산의 영구 갱도의 기둥들도 나무나 콩크리트가 아니라 합성 재료로!》

《수 많은 가스관들과 수도관들도 모두 합성 재료로 만들면 추워도 얼어 터지는 일이 없고 언제나 안전하고 가벼웁겠지요.》

흥분한 젊은이들은 모두 한 마디씩 보태였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합성 재료로써 철을 대신해 쓴다면 현시기 귀중한 철재를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 동무는 젊은이들을 둘러 보면서 침착하게 말하였다.

《자 어서 가서 마지막 실험에 착수 합시다. 그리고 동무들도 함께 가서 그 실험이 성공되거든 새로운 기계 공장의 설계에 착수합시다.》

실장 동무는 젊은이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차례차례 자동차에 올랐다. 문이 닫기더니 소리도 없이 그 자동차는 반대 편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기계 공장

그 때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여기는 새로운 기계 공장, 밝고 깨끗한 건물들은 그전 모습 그 대로이지만 공장 안은 전혀 달랐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첫 합성 수지 기계 공장이였다.

현이와 숙이는 나란이 걸어 들어 갔다.

요란하던 기계 소리는 이젠 들리지 않는다. 기계들은 정확하게 쉬임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벽과 기둥도, 바닥도, 온통 하얀 합성 재료판으로 되여 있는 방안은 주단까지 깨끗이 깔려 있어서 티끌 하나 찾아 볼 수 없었다.

넓은 방 한 쪽에는 큼직한 혼합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합성 재료의 원료들이 거기서 혼합되여 이겨지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원료들은 안내홈을 따라서 성형기로 가고 있었다.

이 성형기라는 곳에서 치차며, 추이며, 벳트며 할 것 없이 수 많은 부속품이 찍혀 나오고 있었다.

현이와 숙이는 오래'동안 말 없이 성형기가 일하는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주단 위를 사뿐사뿐 거닐면서 그들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이 공장의 벽 하나, 기둥 하나, 기계 한 대, 부속품 하나에도 얼마나 많고 많은 이야기가 스며 있는 것일가?

그 동안에도 성형기에서 나온 부속품들은 콤베아를 타고 열 처리 로에로 들어 간다.

이 넓은 직장 안의 어느 구석에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종실 안에서 깜빡거리는 신호등만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계들 틈으로 어렴풋이 보일 뿐이다.

열 처리 로에서는 단단하고 모양 좋고 빛갈이 고운 부속품들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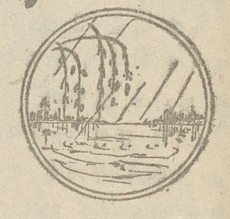
마감으로 그것들은 조립 직장에로 가는 것이였다.

현이와 숙이는 흐뭇한 마음으로 가슴을 펴고 서 있었다.

—끝—



기상 세계를 찾아서



지상의 《기록원》들

우리는 맑게 개인 어느날 대동강반에 자리잡고 있는 기상 수문 관측소를 찾았다.

우리가 들어 서자 관측원들이 각종 측정 기구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는 관측장을 분주히 돌아 다니며 기상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여기에 붙어 있자면 힘들겠군요.》

하고 우리가 말하자 한 관측원 동무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루에 8 회! 즉 3 시간에 한 번씩만 관측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는 매개 계기들이 자동적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측원들을 따라 지상의 《기록원》들을 돌아 보기로 하였다.

이 《기록원》들은 모양도 각이하고 임무 수행도 각이했으나 한 가지 공통성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없고 무한히 충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이다.

최고 및 최저 온도계는 하루' 동안에 제일 높은 기온과 제일 낮은 기온을 표시해 주고 자기 온도계는 하루 종일 기온의 변화를 빠짐 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대기 중에 포함된 습도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습도계가 놓여 있었다.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자기 우량계가 있는가하면 천문적으로 태양의 움직임만을 찍는 《사진사》인 일조계도 있었다.

옥내에 들어 서니 자기 기압계(청우계)가 대기의 압력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고 옥상에서는 바람개비가 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람부는 방향과 풍력을 알려 주고있었다.

구름 우의 《과학자》

기상 관측은 다만 지상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공중에서도 기상 관측은 진행되고 있다.

《지상의 <기록원>들이 아무리 수고한다 하여도 저 <구름 우의 과학자>보다는 덜 수고하지요.》

우리가 고층 기상 관측소에 당도했을 때 고층 관측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 봤으나 고층 관측을 할 비행기와 비행선도 떠'있지 않고 비행복을 입은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물었다.

《구름 우의 <과학자> 동지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고층 관측원은 빙그레 웃으며

《바로 저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직경 2 메터가 넘는 큰 고무 풍선 아래에 밥곽만한 기계가 달려 있다. 이 기계는 라지오 존드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구름 우의 《과학자》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 기계는 고무 풍선을 따라 하늘을 올라 가면서 고공의 일체 기상 상태 즉 기압, 기온, 습도를 측정하여 전파로써 지상 관측소에 보고한다.

지상에서는 구름 우의 《과학자》가 알리는 기압과 기온에 의하여 그가 올라 간 고도를 알아내며 망원경과 마라이트로써 고무 풍선의 동향을 관찰하고 풍향과 풍속도 측정 한다는 것이다.

이 구름 우의 《과학자》는 무려 3만 메터의 높이까지 올라 갈 수 있다.

때마침 관측 시간이 되였기에 우리는 레시바를 들으려 갔다. 레시바에서 나오는 신호 소리는 스피카의 소리만큼 크게 들리였다. 처음에는 기압과 기상 상태를 알리는 신호가 한꺼번에 들려 왔고 그러다가 대기의 습도 상태를 알리는 신호가 들려 오군 하였다.

어느듯 한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에 갑자기 신호가 뚝 끊어졌다. 하늘 높이 올라간 고무 풍선은 파렬되였으며 구름 우의 <과학자>는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것이다.

래일의 기상 예보

우리는 출입문 우에 큼직한 천리마 휘장이 달린 단기 예보 연구실을 찾아 갔다.

여기서는 무전수들이 레시바를 끼고 다른 나라들에서 전해 오는 기상 전보를 접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상 전보들은 모두가 수'자로 되여 있었으며 각 지명도 수'자로써 표시되였는데 평양은 47058의 수'자로써 표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각 곳에서 관측되는 기상 상태를 불과 15 분 동안에 종합하여 다른 나라들에 기상 전보로써 알려 준다.

한편쪽에서는 처녀 조수들이 일기도에 기상 기호와 수'자들을 기입하고 있다.

일기도에는 우리 나라 일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모든 지역의 기상 상태 즉 구름의 유무와 그의 량과 형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속도, 기압, 일기, 습도, 기온, 강수량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지상의 가상 상태만을 표시한 일기도만으로써는 부족하며 일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고층의 기상 상태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고층도에 세밀히 표시되여 있다.

일기도는 하루에 8 차, 고층도는 2 차 작성되는데 이에 근거하여 예보원이 기상 예보를 내린다.

예보원 리 정주 동무는 우리 나라 기상 현상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여 주었다.

《겨울철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하에 북서풍이 불고 보통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삼한 사온의 고유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며 대양으로부터 구름과 비를 가져 와 늘 7~8월에 장마가 들게 되며 때로는 태풍이 지나 갈 수도 있습니다. 5~6월에는 건조한 바람이 련달아 불어서 가물이 계속되여 농사 짓는데 지장을 받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 해로운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기상 학자들은 인공적으로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시험적 단계에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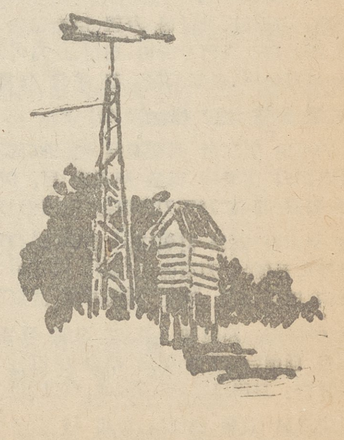
또한 우리 나라 주변에는 동해와 서해와 남해가 있어 기상 현상이 갑자기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산악이 많아서 각 지방에 따라 날씨의 차이가 심합니다.》

마침내 한쪽에서 전화로 래일의 일기 예보를 중앙 방송 위원회에 알려 주고 있는 처녀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 나라 서해 북부 해상에 중심이 있는 1027 미리 바르의 고기압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상 일'군들의 성스러운 로력과 그들의 투쟁을 가슴에 새기면서 단기 예보 연구실을 나왔다.

본사 기자 홍 도희





아프리카의 인상

김 영 기

아프리카의 인상을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대단히 힘들다. 아프리카는 위도 선상에서 보아도 적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약 35 도씩 뻗어 있고 경도상으로 보아도 동으로 약 40 도, 서쪽으로 약 20 도에 걸쳐 있다. 이 광대한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기후, 풍토에서도, 동식물도, 농작물도 다르고 인종도, 사람들의 생활 풍습도 서로 다르다.

그우에 오랜 세기에 걸치는 서 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의 철쇄 밑에서 살아 온 인민들의 생활 처지는 서로 각이하다. 지난해 내가 아프리카 방문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을 수행하여 방문한 서 아프리카의 기니아 공화국, 말리 공화국, 가나 공화국,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 속한 모로코 왕국,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도 역시 서로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다.

서 아프리카의 세 나라 주민들은 흑인들이다. 그들은 태양 빛이 뜨거워선지 머리 수건을 쓰고 다닌다. 보보라고 하는 민족 의상은 중의 가사처럼 폭이 넓다. 그러나 가나에 가면 녀자들은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회회교 지역인 모로코에 가면 녀자들이 장삼 같은 긴 옷을 걸치고 백포로 얼굴을 푹 싼채 눈만 내놓고 다닌다.

기후도 위도만 가지고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아프리카 대륙의 적도 부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계속 가물기만하는 건기와 계속 비만 내리는 우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중해에 접한 북아프리카에는 기후에 그렇게 현저한 변화는 없으나 철이 바뀌운다. 적도 직하라고 해서 언제나 더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말 적도 직하에 있는 가나에 갔을 때에는 비가 부슬 부슬 내리는 밤엔 제법 선선하였다. 그러나 그후 7월에 북위 30 도 근처에 있는 모로코에 갔을 때에는 섭씨 44 도에 이르는 참기 어려운 더위였다. 숨 막히는 더운 바람 때문에 시속 100키로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했다.

아랍 련합 공화국에는 1 년 내내 한번도 비가 내리는 일이 없고 주민들은 사막속에 흐르는 나이르 강반에 모여 살고 있는데 더위는 모로코보다 더하다.

기니아, 말리, 모로코 인민들은 오랜 기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통치 밑에서 살아왔고 가나와 아랍 련합 공화국은 독립 이전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자연과 사람들의 생활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불처럼 뜨거운 태양을 안고 밋밋하게 뻗어 올라간 야자수, 종려수의 숲, 가는곳마다 향기 그윽하게 열매 맺은 남방 과실 바나나와 망고…

아프리카는 풍요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오랜 식민지 통치 밑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 당하여 온 과거와 반제 반식민주의 기치를 들고 자유와 독립의 길에서 새 생활을 건설하고 있는 오늘의 그들의 처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강한 련대성이 있다. 지금 나는 이 나라들을 회상하면서 새 생활 창조의 정열에 끓는 그들의 모습을 정다웁게 가슴에 품는다.

기니아의 수도 코나클리의 기술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한 력사 교원이 하던 말이 생각키운다.

《아프리카의 력사는 다시 씌어져야 한다. 식민주의자들의 날조된 아프리카 력사는 더는 계속 될 수 없다.》

생활이 그대로 정열인 아프리카의 땅에 식민주의자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의 일이였다. 그때로부터 약 400년 간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수난과 암흑의 시기였고 식민주의자들에게는 인류 력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을 기록한 시기였다. 이 대륙에 군림하던 식민주의자들의 시대는 오늘 끝장이 나고 있다. 참고 참았던 분노의 화산은 터져 거세차게 타오르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도적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있다.

그런데 식민주의자들은 몰려 나가면서 자기들이 《이 미개의 땅에 문명과 진보를 가져다 주는 력사적 사명을 다하고 독립을 선사》한듯이 떠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곳 인민들의 생활은 제국주의 강도놈들의 낯 가죽 두터운 거짓말을 폭로하며 규탄하고 있다.

분주한 려정을 재촉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한 우리는 아프리카의 생활을 깊이 볼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는곳마다에서 보고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엿볼 수 있었다.

국경 문제

나라가 있으면 국경이 있는 법이다. 국경은 그 나라 인민들의 력사적인 생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적지 않은 나라의 국경은 그 인민들의 생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스러운 연필에 의하여 그어졌다.

여기 한장의 아프리카 지도가 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색조로 나라들이 표시되여 있다. 새로 독립한 나라도 아직 제국주의 기반에 얽매여 《자유냐, 죽음이냐》하는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국경이 적지 않은 경우 직선으로 표시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땅이 넓어서 혹은 사막이 많아서 그렇게 되였는가? 아니다. 그것은 1885년 베르린에 모인 서구라파 제국주의 렬강 대표들이 연필과 자로 그은 줄이 국경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기 덩어리를 사이에 놓고 싸우는 이리떼처럼 으르렁대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갈라 놓았다. 그후 나라를 표시하는 지도의 색은 구라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세력의 변천에 따라 바뀌여 지군 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령토》들은 영국,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전리품》으로 되였고 그에 따라 주인이 바뀌이고 지도의 색도 달라졌다. 그때마다 인공적으로 분활된 아프리카 인민들의 생활에는 새로운 비극이 첨가되였다. 이렇게 오늘 독립한 신생 기니아가 있는가하면 아직도 포도아 령으로 되여 있는 기니아가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가 불란서 식으로 니제르라고도 불리우고 영국식으로 나이제리아라고 불리우고 있다.

세갈래로 갈라졌던 소말리는 아직 두 부분만이 독립을 선포했고 한 부분은 아직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남아있다.

우리는 가나에서 한 청년을 맞난 일이 있다. 그는 에웨족 청년이였다. 에웨족은 가나의 주요 종족 중의 하나인 동시에 이웃 나라인 토고의 주요 종족의 하나이기도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기름진 땅에서 수천년을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인, 독일인들이 들어 오면서 우리 에웨족은 우리도 모르게 영국 령토, 독일 령토의 주민으로 갈라지게 되였습니다. 독일이 망한 뒤엔 그 자리에 불란서가 들어 왔습니다만 독일말 대신 불란서 말이 강요된 외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하여 내가 나서 자란 마을 한 복판엔 국경아닌 국경이 생기고 우리 집안 친척들도 헤여져 살게 되였습니다. 1 년, 2 년 그리고 20 년, 30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언어도 풍습도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과 진보를 갖다 주었다는 식민주의자들이 감행한 죄악의 한 토막입니다.》

수천년을 운명을 같이 하여 온 한 종족이 이제는 서로 외국인으로 상면해야 되고 서로 다른 외국어를 공용어로 갖게되면서 전통적인 생활이 파괴되고 있다. 이 비극은 다만 이 에웨족 청년에게만 차례진 운명이 아니다.

모로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독립을 선포한지 오래인 이 나라에는 아직도 여러 지역이 외국의 《령토》로 남아 있다. 그중의 하나로 서반아 령 《이프니》가 있다. 이 나라의 남방에 가서 우리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서반아인들이 총창을 들고 경비하고 있는 국경아닌 국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독립된 나라의 령토 한 모퉁이에 남아 있는 식민지 《이프니》는 모로코의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남아 있고 거기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이프니》를 반환하라는 모로코의 요구는 그때마다 거절 당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이프니》가 서반아의 합법적 령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빼앗긴 《이프니》는 어머니의 품 속으로 돌아 오고야 말 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무너져 가는 자기들의 옛 지위를 유지하는데 이 인공적 분활을 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분활하여 통치》하는 상투적 수'법에 따라 도처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고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미제는 《친선》과 《벗》의 가면 밑에 올가미와 채찍을 감춰들고 이 대륙 인민들에게 새로운 노예의 멍에를 들 씌우기에 발광하고 있다.

언어와 문맹

기니아에서 우리는 예술 경연을 본 일이 있다. 전국에서 선발되여 올라 온 세 단체가 노래와 춤, 연극을 자기들의 민족어로 공연하고 있었다.

동적인 그 표현 형식의 소박성과 진실성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더 감동시킨 것은 자신들의 새로

윤 민족 문화를 창조하려는 그 열정이였다.

그들은 노래와 연극을 창조하고 연습하는데 구전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작자가 말로된 가사나 대본을 연기자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들은 이것을 암송한다. 그들에게는 민족 문'자가 없는 것이다. 《구라파 문명의 정수》를 자랑하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통치밑에 살아온 이들은 자기들의 문'자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 왔다.

250만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는 10 여 개의 종족어가 있다.

가나의·사정도 말리의 형편도 역시 다름이 없었다. 인구 480 여 만의 가나에는 거의 20 개의 종족어가 있으나 민족어와 민족 문'자가 없다.

아랍어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에는 민족어가 없으며 민족 문'자도 없다. 어느곳이나 80~95 %가 문맹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죄악상을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기니아와 말리에서는 불란서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나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되여 있는데 인구의 5~10% 만이 이 외국어를 리해하고 있을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언어도, 민족 문'자도 갖지 못한 것을 아프리카인들의 《렬등》에 대한 증명으로 끌어내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수백년 동안 식민지 살륙 전쟁으로, 노예 사냥으로 5 천만 이상의 주민을 끌어가면서 종족들을 멸종시키고 생산력과 문화를 파괴하였으며 외계의 문명과 격리하여 원시적인 자연 경제와 노예 로동을 총칼로 유지해온 것은 누구였는가?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맹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대륙에 남긴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기록인 것이다.



식민지에서의 우민화 정책—그것은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수법이다. 독립전 기니아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기니아 교육성 총 비서는 《불란서 식민주의가 남겨 놓은 교육 없는 상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긴급한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매장량 6억 톤의 보키사이트, 매장량 23억 톤의 철광석의 원광 략탈과 바나나, 야자, 코코아와 같은 농작물을 주로 략탈 대상으로하고 있던 불란서인들은 이곳에다 식민지 노예 교육마저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민족 간부가 없는 것은 신생 공화국의 전도에 심중한 애로로 나서고 있습니다.…이것은 오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심중한 후과의 하나입니다》 교육성 총 비서는 해방후 민족 간부 문제를 해결한 우리 나라의 경험을 상세히 알리워달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였다.

1958년 10월 기니아가 독립을 선포했을 때의 일이였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기니아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던 수천명의 불란서인 행정 관리 일'군들, 기술자들, 교원들까지 일제히 소환해 버렸다.

그리하여 국가 행정 기관도, 경제 기관도, 농업 연구소도, 학교도 일시 마비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교원과 전문가들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기니아의 벗들을 도와주려 달려 왔다.

그때로부터 4 년이 흘러갔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기도가 헛된 공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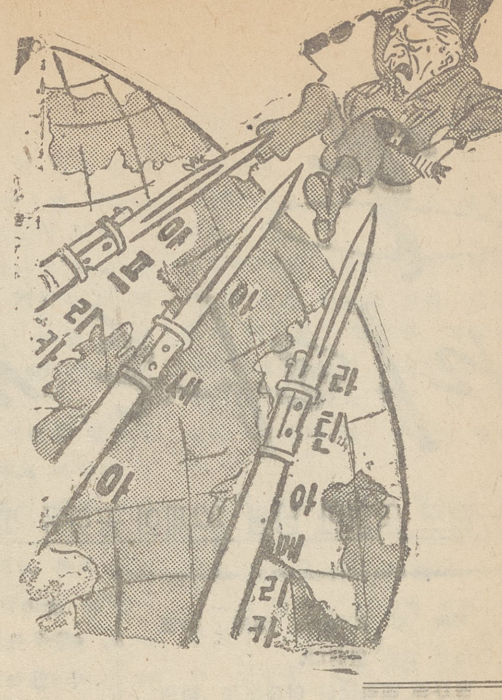
기니아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도 144 개의 학교가 신설되였다.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고 코나크리에는 대학이 건설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식민주의자들이 남긴 그 심한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가시면서 전진하고 있다. 자유로운 발전의 길, 광명한 미래를 확고하게 내다보는 그들의 전진을 어떠한 난관도, 애로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도 멈출수는 없다.

코나크리의 시내 한복판에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집단 로동에 나서고 있는 청년들을 볼때나 또는 저녁 해풍이 서늘한 야자수 그늘에서 그 독특한 충격적인 북을 울리며 춤을 즐기는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약속된 앞날의 행복에 축하를 보내군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140 만 명의 로임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치부한 미국의 8 대 재벌의 하나인 듀퐁은 화려한 주택과 24 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는 미국의 학교 건축 총액의 10 분의 1에 해당하며 농업 로동자



140 만 명의 한달분 로임과 거이 같은 것이다.

도적놈의 나라

최근 《미국 련방 조사국》 국장 후버는 미국 사회의 부패상의 일단을 보여 주는 일련의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1960년에 미국에서 《평균 매 58분 동안에 1건의 살인 사건, 매 39초 동안에 1건의 야간절도 사건, 매 6분 동안에 1건의 강도 사건, 매 1분 동안에 1건의 대절도 사건, 매 34분에 1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매 4분 동안에 1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도난 사건은 매 2분에 1건씩 있었다.》

피묻은 돈

미국 독점체—그것은 전쟁으로 치부하는 흡혈귀이다. 례컨대 미국 독점체들은 제 1 차 대전 년간에 세금을 제외하고도 2배 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제 2 차 대전에서 미제는 새 시장과 새로운 원료 원천지를 점탈하였으며 570 억 딸라를 벌었다.

미국의 8대 재벌의 하나인 록펠러 재단은 제 1 차 대전 기간에 1천 만의 인명이 희생된 대'가로 무려 4억 5천 만 딸라의 순리득을 얻었다. 이것은 죽은 매 사람이 록펠러에게 45 딸라씩 벌어 준 것으로 된다. 제 2 차 대전 기간에 록펠러는 2천 7백 만 명의 인명이 희생된 대'가로 21 억 2천 만 딸라 이상의 순리득을 얻었다.



마라손 선수의 일과

—전도 양양한 당년 22세의 공화국 마라손 선수 류 만형 동무의 생활기—

마라손의 유래

기원 전 490년에 희랍 아테네에서 있은 일이다.

펠샤유 침략군이 아테네를 불의에 침공하였다.

아테네군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영용하게 싸웠다. 가렬한 전투 끝에 펠샤유군은 격퇴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최후의 격전은 넓은 벌판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아테네군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펠샤유군을 그 넓은 벌에서 소멸하고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 벌판의 이름은 마라손이였다.

이 빛나는 승리를 시청에 알리기 위하여 한 병사가 마라손 벌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 병사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단참에 시청까지 달려 와 《아테네는 승리하였다》고 웨치고서는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병사가 달려온 거리는 무려 42 키로 165 메터(105 리)였다.

그 후 이 나라 인민들은 아테네군의 승리와 그 병사의 영웅적 행동을 기념하여 마라손 벌까지 달리는 경기를 전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경기를 마라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혹시 독자들이 나에게 《동무는 몇시간이나 달릴 수 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무한정 달릴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동무의 심장은 <돌 심장>이고 <무쇠 다리>란 말인가?》하고 다시 반문할 수 있다.

아니다. 나의 심장도, 다리도 독자들과 조금도 다름 없는 보통 것이다. 다만 나의 심장과 다리는 훈련을 통하여 단련되였을 다름이다.

지금 나는 달리기에서 암만 먼 거리를 달린다 하여도 숨이 차고 심장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리가 아파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기력이 부족해서 더 높은 속도를 얻지 못할 뿐이다.

마라손은 사람들의 인내력과 지구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체육이다.

내가 마라손 선수가 되자고 희망하게 된 것은 벌써 오래 전 일이다.

나는 고향인 강원도 평강에서 초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급 중학교에 다녔다. 고급 중학교는 평강읍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부터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나는 비가 내리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언제나 학교에까지 뛰여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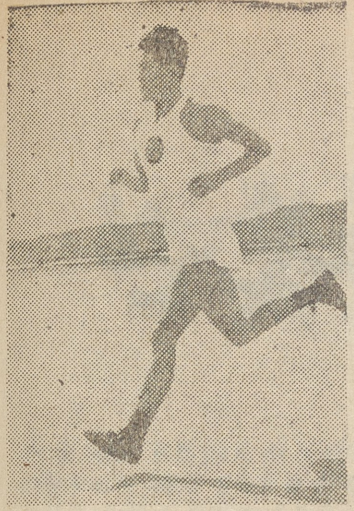
그 해 가을에 학교에서 교내 체육회가 있었다. 체육회에서는 다양한 경기 종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라손도 들어 있었다.

나는 50 여 명의 동무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하였다. 선수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축이였다.

그 때 군중들은 《꼬마》인 나를 바라 보며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응원의 눈'길을 돌려 주었다. 그러나 군중들은 내가 우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키가 구척 같은 선수들을 멀리 떨구고 내가 맨 선참으로 운동장에 들어 섰을 때 군중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이와 같이 마라손 경기에서 《첫 우승》한 때부터 나는 달리기 련습을 꾸준히 하기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다만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달리였지만 그 후부터 달리기 훈련을 목적 의식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이 내가 마라손 선수가 된 경위이다.

나는 가끔 청년들로부터 하루 일과를 알려 달라는 편지를 받군 한다. 지금 나의 하루 생활은 랭수 마찰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랭수 마찰을 시작한지는 벌써 오래 전인 학교 시절부터이다.

랭수 마찰이란 것이 간단한 것 같으나 이것을 습관화 하자면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강한 의지와 인내성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 랭수 마찰을 시작하였을 때 나는 이것을 시끄러운 부담으로 생각하였었다. 그것도 여름 한 철은 그닥 문제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한풍이 휘몰아 치는 겨울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름'장을 고고 손을 잠글 때면 소름이 끼치군 하였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체력은 단련되였으며 인내력도 배양되였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감기에 걸려 본적이 없으며 더구나 병원 신세를 져본일이 없다.

랭수 마찰이 끝나면 아침 달리기를 한다. 이 거리는 90 리 내지 100리이다. 나는 학생 시절에도 아침에 40~50 리씩 달리였다.

매일 아침 먼 거리를 단참에 달리자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나는 것도 인내성 있게 참아 내야 하였다.

여름 날 아침에는 목이 조여들고 심장이 답답하여 내'물이라도 마시고 싶고 겨울 날 아침에는 목 안이 아파나군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아 내야 하고 이겨 내야 한다.

아침 달리기에서 돌아 와 다시 랭수 마찰을 한 다음에 밥을 먹는다.

나는 자연 지물을 리용하면서 먼거리 달리기 훈련을 한다. 나는 벌써 학생 시절에 이런 훈련을 해 왔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내 고향은 산이 많은 곳이여서 학교 까지는 높고 낮은 고개들이 많았다.

나는 이 고개'길을 리용하여 달리기에서 경사지 올려 채기와 내려 달리기의 속도를 얻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었다.

고개'길의 경사지를 올려채고 내려 달리기에서 보폭을 넓혀 보기도 하고 보폭을 좁혀 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경험은 장거리 경우에 경사지 달리기는 보폭을 넓히는 것보다 보'수를 증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나는 짧은 토막 시간을 리용해서 100 메터 질주를 반복 련습한다.

100 메터 질주 련습은 왜 필요한가?

장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 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달리는 도중에 상대방보다 멀리 앞서야 할 경우도 있고 또는 앞선 선수를 따라 잡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런 때에 부득이 질주의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느니만치 높은 속도를 가져야 한다.

나의 일과는 계절에 따라 변동된다. 기후가 찬 겨울 철에는 심장을 단련시키는데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먼 거리를 달리면서 주로 인내력과 지구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름 철에는 달리기 속도를 높이여 심장을 달련시키는 한편 먼 거리를 달리군 한다.

나의 일과는 하루 종일 흘린 땀을 씻는 목욕으로써 끝난다.

나는 지금 당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나의 희망 대로 공화국의 마라손 선수가 되였다.

나는 얼마전에 있은 공화국 기록 대회의 마라손 경주에서 1 착 하였다. 그러나 아직 세계 기록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나는 훈련에서 더 많이 땀을 흘려 금년 내로 세계 기록인 2시간 17분을 기여히 돌파하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2. 8 체육단 마라손부

류 만 형

참관기



이슬이슬한 격전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 소리와 함께 2.8 선수들의 맹렬한 공격이 먼저 개시되였다. 우익 공격수 전 대형 선수가 측선을 타고 뽈을 끌고 들어 가다가 가운데로 차 넘기였다.

때마침 중앙으로 달려 들어 가던 중앙 공격수가 그대로 받아 날쌔게 들이찼다.

《꼴!》 관중들이 환성을 올리며 일어 서는 순간, 매봉산 문직이 박 용길 동무가 비호 같이 뻗으면서 꼴문 모퉁이로 총알 같이 날아 들어 오는 뽈을 막아 냈다. 그 찰나에 쏜살 같이 문으로 달려 들던 2.8 중앙 공격수가 뽈을 재차 들이찼는데 문 가름'대에 맞고 또 다시 튀여 나왔다.

관람석에서는 환호가 올랐다.

경기가 시작되여 단 몇 분 동안에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여러 번 거듭 되면서 경기는 더욱 치렬해졌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있은 1 급 선수단 제 1 차 축구 련맹전(2 조)에서 2.8 선수단과 매봉산 선수단 간에 있은 개전 벽두의 한 장면이였다.

이번 경기가 관중들의 이목을 끈데는 일정한 리유가 있었다.

그것은 량 선수단 선수들 모두가 20 세 내외의 혈기 왕성한 젊은 선수들로서 구성되여 있다는 점과 특히는 이 두 선수단들이 이번 련맹전에서의 우승 후보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였다.



전 날 경기에서 2.8 선수들은 기관차 선수들과 대전하여 3 대 0으로 이겼다. 그들은 다른 선수단들에서 볼 수 없는 중 장거리 속공을 전개하였는데 차기와 련락은 정확했고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주력은 관중의 감탄을 자아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단거리 련락이 잘 안 되는 약점도 있었다.

2.8 선수들과 대전하는 매봉산 선수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전날 경기에서 체육 대학 선수들과 대전하여 4 대 0으로 이긴 강팀이다. 이 경기에서 그들이 보여 준 것은 공격수들의 위치 교체가 아주 기동성이 있고 련락이 매우 정확한 점이였다. 특히 6 번 김 장복(18 세) 선수는 공격수와 방어수들의 련결을 잘 맺아 주어 공격도, 방어도 다 잘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봉산 선수들에게도 차 넣기가 부정확한 약점이 있었다.

과연 어느 선수단이 이길 것인가는 예측키 어려운 일이였다.

오직 누가 마지막까지 굴함 없이 잘 싸우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게 되여 있었다. 그러니 경기 첫 시작부터 치렬한 격전이 있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슬아슬한 격전 속에 시간은 빨리 흐른다. 전반전 20 분이 지났을 때였다.

그 때까지 여러 번 공격을 들이대였으나 좋은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매봉산 선수들은 마침내 상대방의 문앞으로 깊이 육박해 들어 갈 수 있었다. 문전 7 메터! 뽈을 잡은 중앙 공격수 고 득수 선수는 그 자리에서 힘껏 들이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앞에는 상대방 방어수가 가로 막아 서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옆으로 빠져 나가자니 량쪽에서 또 방어수들이 달려 드는 것이다. 민첩하게 정황을 파악한 그는 뒤로 뽈을 슬쩍 돌리는 것처럼 하다가 번개 같이 꼴문 왼쪽 구석을 향해 그대로 들이찼다.

어떻게 되였는가?

정 은정 선수가 그물이 께저라 하고 들이찬 뽈은 문 가름'대를 스치며 들어 가는 뽈이였다. 그런데 이 때 2.8 문직이 최 영호 선수가 필사적으로 뛰여 올라 주먹으로 냅다 쳐서 우측을 시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던 것이다.

2.8 선수들은 자기들의 용감한 문직이 최 영호 동무를 끌어 안았고 관람자들은 그의 불굴의 투지에 감동되였다.

한 점을 잃을 번 했던 2.8 선수들은 방어진을 더욱 철벽 같이 치고 자기들의 독특한 전술인 중 장거리 속공전을 들이 대였다.

그러나 전반전은 치렬한 격전 끝에 서로 승부 없이 끝나고 말았다.

량측 선수들은 서로 전반전을 총화지으면서 자기들의 새 전술을 열렬히 토론하였다.

후반전을 알리는 긴 호각 소리가 울렸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왔다. 전반전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량 선수들은 휴식하는 동안 어떤 새 전술을 짜 가지고 나왔을 것인가? 2.8 선수들은 익측 공격수들의 비호와 같은 돌입력과 중 장거리 련락을 배합하여 일거에 상대방 방어진을 뚫고 들어 갈 계획이였다.

매봉산 선수들은 전체 선수가 한 덩어리가 되여 공격이나 방어나 할 것 없이 전면성을 보장하면서 전면 공격과 전면 방어를 들이대여 득점할 심산이였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경기는 불꽃이 튀였다.



2.8 선수들은 뽈을 길게 차서 익측 공격수들인 전 대형, 석 길웅 선수들에게 갈라 보내면서 노도와 같이 달려 들어 갔다.

련속 밀려 드는 파도와 같은 공격에 매봉산 방어수들은 한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전을 거듭하였다.

2.8 선수들의 기세는 충천하고 방어수들까지 공격에 떨쳐 나섰다. 문'자 그대로의 총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금시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상대방의 완강한 방어에 조우되여 좀체로 술 기회가 없다.

2.8 선수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매봉산 공격수들은 침착하게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급할수록 침착하고, 어려운 정황일수록 잘 타산해야 한다는 신조가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뽈이 중앙선 근방으로 넘어 왔다. 공격과 방어, 이 량쪽에 다 가담하면서 눈부시게 활약하던 6 번 김 장복 선수가 내찼던 것이다. 이것을 매봉산 중앙 공격수 고 득수 선수가 재빨리 받아 가지고 오른 쪽으로 길게 차서 10 번 김 경화 선수에게 보냈다. 문전 13 메터다. 그 때 2.8 방어수가 달려 들었으나 한 발이 늦은 것이다. 김 경화 선수가 찬 뽈은 벌써 문을 향해 번개 같이 날아 들어 가고 있었다.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어찌나 세게 찼던지 전반전에서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였던 문직이 최 영호 선수도 어찌할 새가 없었다. 뽈은 왼쪽 모퉁이로 들어 가 그만 그물에 철썩 걸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후반전이 시작되여 7 분만에 매봉산 선수들이 먼저 한 점을 얻었다.

승부는 어데로 돌아 갈 것인가? 방어에서 재빨리 공격에로 넘어 간 매봉산 선수들이 한 점을 득점하긴 했으나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경기 시간은 아직도 38 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마지막 1 분 동안에도 꼴을 차 넣는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38 분이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매봉산 선수들은 한 점을 먼저 넣었다고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아직도 시간은 많다! 만약 방어에만 치중하다가 한 점을 잃게 되면 그 때는 다시 득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완강하게 공격해 나섰다.

한편 2.8 선수들은 한 점을 만회하기 위하여 철벽이라도 뚫고 나갈 기세로 달려 들었다.

후반전 17 분 경에 매봉산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졌다. 매봉산 방어수들과 2.8 공격수들이 한데 엉키였다. 뽈은 이 다리 저 다리에 걸려 더 나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돌기만 한다. 그러다가 2.8 우익 공격수 여 기풍 선수가 들이찬 것이 상대방의 가슴팍에 맞고 튀여 나왔다. 그 때 왼쪽 문 앞으로 달려 들어 오던 좌익 공격수 석 길웅 선수가 그것을 그대로 들이찬 것이 꼴이 되고야 말았다.

경기가 거이 끝날 무렵까지 지칠 줄 모르는 공반전은 계속되였다. 밀려 들어 오고 파도 같이 밀려 나가고 격전은 치렬 했으나 좀처럼 어느 편이고 득점은 못하고 있었다.

최후의 1 분! 과연 이 1 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2.8 선수들이 총 공격으로 넘어 갔다. 다시 매봉산 문 앞에서 혼전이 벌어 졌다. 초를 다투는 긴장한 순간이다.

2.8 선수들은 숨 돌릴 새 없이 련신 차 넣기를 들이 댄다.

매봉산 선수들은 한일'자로 옆으로 쭉 내뻗기도 하고 곤두박질을 하기도 하면서 머리면 머리, 가슴이면 가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몸을 들이대여 련속 총알 같이 날아 드는 뽈을 막아 낸다.

그러다가 뽈이 왼 쪽 문 앞으로 굴러 나왔다. 바로 여기에 공간이 있었다. 이제 그 대로만 들이 차면 꼴은 문제 없을 것만 같다.



이 천재 일우의 좋은 기회에 2.8 좌익 공격수가 번개 같이 달려 들어 왔다. 그러나 발이 뽈에 닿는 그 찰라에 야속하다! 후반전이 끝나는 호각이 울린 것이다.

이리하여 경기는 무 승부로 끝났으나 젊은 축구 선수들의 용감성과 희생성, 불굴의 투지는 력력히 시위되였다.

이 날 경기에서 량 선수들은 더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었다.

우선 2.8 선수들을 놓고 볼 때 상대방에 비하여 공격력이 아주 좋았다.

특히 량 익측 공격수들의 눈부신 속공과 중앙 공격수들의 재빠른 돌입력은 상대방 방어수들의 물샐틈 없는 방어도 능히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더 득점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 방어선을 불이 나게 뚫고 들어 가는데 성공하긴 하지만 최후의 결산을 서룰게 하는 데 있었다.

이 원인은 뽈을 급히 처리하려는 조급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데서 나타나군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찬 뽈이 상대방의 다리에 맞아 나오거나 혹은 문'대를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빈번하였다.

이것은 차 넣기의 부정확성과도 역시 관련된다.

앞으로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 2.8 선수들이 현재 쓰고 있는 중 장거리 속공 전술을 계속 살린다면 더욱 훌륭한 선수단으로 될 것이다.

매봉산 선수들은 2.8 선수들에 비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주 대담하고 조직적이였다.

특히 김 장복 선수를 비롯한 중앙 방어수들이 대담하게 공격에 가담하여 자기들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의에 차넣기를 들이 대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우 불안케 하면서 득점의 기회를 노리군 하였다.

이러한 우'점에 정확한 차넣기가 결합되였더라면 적어도 한두 꼴은 더 넣었을 것이였다.

그러나 중앙 공격수들의 돌입력이 미약하고 차넣기가 약한데다가 또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더 득점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공격수들이 더 령활하고 재치 있고 날쌘 공격 기술을 소유한다면 매봉산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후 경기들에서 이 량 선수단은 아주 잘 싸워 매봉산 선수들이 1 위를 쟁취하였고 2.8 선수들이 2 위를 차지하였다.

강 철구



360 kg의 쇠'덩이

이 사진은 조선 혁명 박물관에서 찍은 것이다.

무게가 360 kg나 되는 쇠'덩이는 《신의주 왕자제지 주식 회사》에서 자본가들이 조선인 로동자를 채용할 때 그들의 근력을《시험》하던 것이다. 이 쇠'덩이를 목도로 운반하지 못하는 로동자들은 채용되지 못 하였다.

이 쇠'덩이는 과거 자본가들의 로동자들에 대한 간악한 착취상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강 초롱

이 꽃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금강산에만 있는 금강 초롱이다.

이 꽃은 도라지과에 속하는 진기한 조선 특산 속식물인데 내금강 사선교 부근에 많다.

8 월이면 천자색의 긴 종상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여 초롱 모양으로 아래로 드리운다.

이 금강 초롱은 경치 좋은 금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 한다.

《유 선》

평양 동물원에 있는 이 표범은 함북도 유선군에서 잡았다하여 《유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표범을 잡기 위하여 김 제곤 포수는 작년 10 월부터 4 개월 간에 걸쳐 유선군 룡천리에 가서 산막 생활을 하다가 드디여 금년 2월 9일에 연두봉에서 함정을 놓아 생포한 것이다.

지금 《유선》 은 편양 동물원 맹수사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아오는 구경'군들 앞에서 《아양》을 부리며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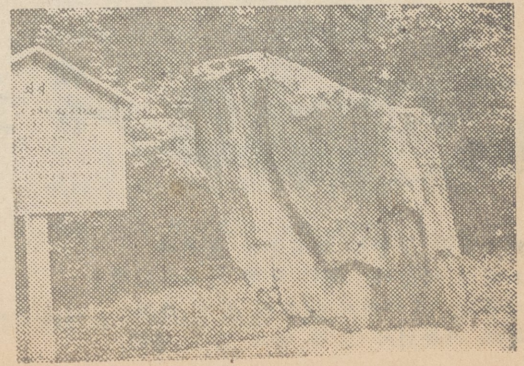


1억 5천 만년 전의 화석

이 화석은 1954년 모란봉 기슭 서쪽 골짜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금으로 부터 약 1억 5 천만년 전 (중생대 유라기)에 늪'가에 물이 고인 얕은 습지대에서 성장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 같은 나무의 밑둥구리와 뿌리가 모래와 진흙에 묻히여 굳어진 것이다.

지금 중앙 력사 박물관에 보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년륜이 뚜렷하고 목질이 분명하다



독자 문예

그이의 손'길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휴계실
우리는 탁상에 둘러 앉아
질 좋은 제품을 두고
자랑으로 꽃을 피운다.

동무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제'날 견습공이던 내가
이런 으뜸 가는 금빛 제품
어떻게 만들어 냈는가를!

말보다 앞서 나래펴는 생각—
선반 기술 배우노라 바쁘던 견습공 시절
첫 바이트 물리고 선반을 돌리던 날
그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오신 것은…

나의 기대 앞에 걸음을 멈추신 그이
방금 깎아낸 부속품
서툴고 거칠은 나의 첫제품 손에 드시고
자애로운 미소 지으시며
좋은 제품이라 치하해 주셨다.

학교는 다니느냐? 그이께서 물으시기에
공장 대학에 다닌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이는 환하게 웃으시며
—빨리 배워 좋은 제품 많이 깎아야지—

아, 경애하는 수령, 우리의 어버이
후야근 출근 길에서도
불꽃 튀는 선반기 앞에서도
그 언제나 한번은 모시리라
그 얼마나 마음 속에 고대해 왔던가!

경애하는 그이께서
나어린 선반공의 래일을 축복해 주실제
가슴 속에선 뜨거운 것이 마구 치밀어 올라
그만 두 눈에 눈물마저 핑 돌았어라
그이의 뜨거운 사랑 온몸에 느끼며
서투른 제품 가슴에 안고
몇번이나 내 맹세 다졌던가!

그날로부터
불꽃튀는 나날이 흘러
일'손 서투던 견습공으로부터
오늘은 어엿한 6 급공으로 자랐으니

나는 떳떳이 말 하노라.
경애하는 수령께서 오신 그날
첫 제품우에 깃든 그이의 사랑의 손'길로하여
그 가르침 언제나 내 가슴을
활활 불태워 주었기에
나의 몸도, 마음도, 기술도 자랐다고—

황해 제철소 운수부 차량 직장 박 동 선



문화주택 일어선다

아침해는 두둥실 동산우에 솟는다.
노래가 넘친다. 문화 주택 건설장이여!
기둥도, 서까래도 엇갈려 뻗어 가고
목조 기중기가 보'장 물고 돌아 간다.

웃음소리 마치소리 흥겨운 일터여!

에헤라. 누가 잡았나 좋기도 하구나
조합의 푸른 논판 한눈에 보이누나

수양버들 우거져 록음 짙은 그 아래
수정 샘물 솟아나고 새들도 지저귄다.
양지바른 산 기슭에 일어서는 마을이여!

미덥구나, 건설대원 일'손마다 불꽃튄다.
번개같이 휘두르는 미장 칼은 번쩍이고
쉴새없이 올라가는 벽체와 벽체
부엌도 아담하고 고'간도 크다.
사이 좋게 모여 앉는 집과 집이여

그 옛날 우리 농민 땅 속 움막에서
뼈아픈 나날을 눈물로 보냈다.
허나 오늘 여기
태산같은 로동당의 품에서
천만년 살아 갈 행복의 보금자리
자자손손 전해질 삶의 집 일어선다.

아담도 하구나, 마음에 함뿍든다.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 받혀 입은듯
기와는 이어지고 회벽도 산뜻하다.
건설대원 어깨넘어, 방긋 웃는 창문넘어
아침해 두둥실 솟아 오른다.

조선 인민군 우편함 제 74808호(ㄱ. ㅂ) 림 종 근



공장 가는 길

이른 새벽 나는 공장'길에 나섰다.
새벽 안개 조용히 흐르는 거리,
천리마 기수들의 씩씩한 발구름 속에
나도 나의 공장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전야를 스쳐오는 싱그러운 바람
어리광치듯 가슴에 안기누나.

높은 아빠트 창문 마다에선
행복의 웃음'소리 흘러 나오고
발'걸음도 가벼운 사람들의 온몸에
환희와 기쁨이 어려 있구나.

동녘 하늘이 밝아오는 저 멀리
나의 사랑하는 공장이 보인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기계의 동음이
나의 가슴을 가득채우누나

희망의 아침 즐거운 공장'길이여!

우리 서로 일하는 초소는 달라도
우리의 념원은 오직 하나
빛나는 미래에로 닿아 있구나…

가렬한 전투의 3 년 세월
우리의 초소는 서로 달라도
한 명령 받들고 한 대렬 속에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천리마 대렬 속에 있구나.

공장으로 곧바로 뻗어 있는 이 길
바로 이 길이 락원으로 뻗어 있거니,
바로 이 길 우에 우리의 행복이 놓여 있고
휘황한 미래에 닿아 있구나.

이른 새벽 나는 공장'길에 나섰다.
희망이 넘치는 거리
천리마 기수들이 씩씩한 발구름 속에.
나도 나의 공장으로 걸어 간다.

해주 영예 군인 학용품 공장 리 두 성

청년 오락실

현상 문제

(1) 민청원 12 명으로 구성된 우리 분조에는 매월 월간 잡지가 다음과 같이 배당되고 있다.

- 청년 생활～6권
- 공산주의 교양실～4권
- 청년 문학～2권

분조장 만길이는 이 세 가지 책들을 1 개월 (30일)간에 매개 민청원들이 골고루 읽게하였다.

독자들! 만길이는 한 개의 잡지를 한 사람이 각각 며칠씩 읽게 하였을가? 그리고 매일 잡지 하나씩만 가지고 읽게하려면 분조 독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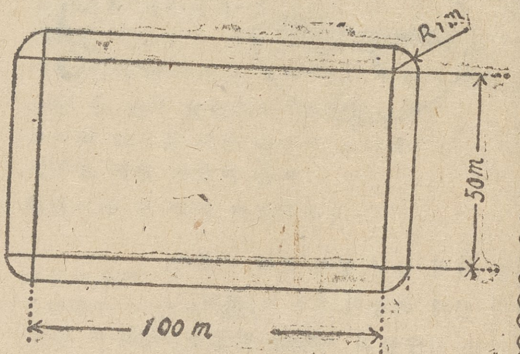
출제자, 함흥시 흥남 구역
제 12 시설 건설 트레스트
백 옥 자

(2) 찬호 동무네 조합에는 큰 저수지가 하나 있다. 이 저수지에는 3 개의 큰 양수기가 설치되여 있는데 1 호 양수기로써 저수지에 물을 채우려면 9일이 걸리며 2 호 양수기로써는 12일이 걸리며 3 호 양수기로만은 18일이 걸린다.

현재 이 저수지에는 물이 $\frac{1}{4}$ 만이 남아 있는데 3 개의 양수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저수지에 물을 채우려면 며칠이 걸리게 될가?

2 호 현상 문제 해답

철수는 랭상모 울바자의 총 거리보다 6,28 메터 더 돌았다. 그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철수가 더 돌게되는 네모진 곳을 다 합치면 반경 1 메터의 원을 한바퀴 돈 것과 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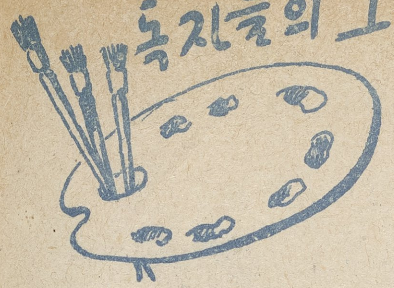


2 호 현상 문제 당선자들

함흥시 퇴조 구역 퇴조 벽돌 공장
위 춘 섭
영화 기계 공장 공무 동력 직장
박 선 금

《청년 생활》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 (38—58, 83—85)
1962년 6월 10일 인쇄 1962년 6월 15일 발행
《값 60 전》 7—230 308

독자들의 그림





《단야공》

류 진택 그림



《제사공》

명리억 그림



《평양의 거리》

리 영곤 그림

8314 Чхон'нен сянхваль

